

第三十五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第四十二號 國會事務處

檀紀四二九三年六月二十一日(火) 上午十時

議事日程(第四十二次會議)

- 一、第四十・四十一次會議錄通過
- 二、報告事項
- 三、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
- 四、國會議員選舉同時實施에 關한 建議案
- 五、政府組織法改正法律案 第二讀會
- 六、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七、警察法案 第一讀會

討論된 案件

- 一、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三面
- 二、議員身上에 關한 報告……………四面
- 三、良民虐殺事件에 關한 建議案……………七面
- 四、大邱西門市場火災事件에 關한 建議案……………七面
- 五、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七面
- 六、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 件……………二六面
- 七、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二六面
- 八、警察官示威에 對한 收拾策에 關한 件……………三九面

(上午十時五十分開議)

○議長(郭尙勳)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四十二次會議을 開議합니다

四十一次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議事課長 第四十次會議錄朗讀)

지금 報告한 것은 第四十次會議의 會議錄입니다
오늘 報告할 것은 四十次會議 四十一次會議까지

읍니다

四十一次는 어제 우리가 「아」大統領을 맞이해서 經過한 것이요 四十次는 전번에 會議한 것이입니다 그러면 두번 通過를 해야겠기에 지금 報告한 四十次會議錄 報告에 있어가지고 漏落이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없소」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接受합니다

다음 四十一次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議事課長 第四十一次會議錄朗讀)

四十一次會議錄에 異議있습니까?

○鄭 藩議員(議席에서) 「아이젠하워」 禮訪人事라고 했는데 演說로 고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議長(郭尙勳) 에 演說로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異議있으십니까? 接受하는데……

(「異議없소」하는이 있음)

그러면 接受하겠습니다

다음은 事務處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李鎬振) 六月二十一日자로 陳慶夏議員外 二十二인으로 부디 大法官 職務代理에 關한 臨時措置法案이 提出되었습니다

法律案提案

大法官職務代理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大法院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는 憲法 第七十八條에 依한 大法院長 및 大法官이 選任될 때까지

高等法院長 또는 大法院 判事로 하여금 大法官의 職務를 代理케 한수 있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提案理由

法院組織法 第七條에 의하면 大法院의 事物管轄로써 訴訟物價格이 五百萬圓을 超過하는 民事事件 및 人事에 關한 事件、死刑、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한 事件 選舉訴訟事件 行政訴訟事件은 五人의 大法官 단으로써 構成된 合議部에서 이를 審判하게 된다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舉法이 制定되어 選任될 때까지는 數個月이 要하게 될 것으로 思料되는데 그동안 大法官이 五人未滿으로 되었을 境遇 訴訟事件 處理를 할수 없게 되는 것을 防止하여야 하므로 本法案을 提出하는 바임
四二九三年六月二十一日

提案者 陳慶夏 外二十二二人

- 韓根祖 鄭在浣 田泳爽
- 尹明運 金善太 李炳夏
- 徐範錫 閔寬植 鄭憲柱
- 鄭重燮 羅容均 柳珍山
- 梁一東 尹濟述 劉聖權
- 閔壯植 金彰東 徐廷貴
- 金憲俊 洪吉善 鄭成太
- 金正煥

이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四附해서 審査報告
케 하겠읍니다

六月二十一日字로 運營委員會委員長 李成株議員
으로 부터 第三十五回 國會 臨時會 會期를
七月一日부터 七月二十五일까지 二十五日間
延長하자는 會期延期에關한 決議案이 提出되었
읍니다

禮紀四二九三年六月二十一日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成株

民議院議長 郭尙勳 貴下

會期延期에關한決議案提出에關한件

標記件에 關하여 第三十五回國會臨時會 會期를
左記와 如히 延期하기로 決議되었았기 茲以 提
出하나이다

記

自 四二九三年 七月 二十五日 二十五日間
至 四二九三年 七月 二十五日 二十五日間

六月十八日字로 政府로부터 지난 六月十七日 第
三十九次 本會議에서 議決한 禮紀四二九三年度
第一回 追加更正豫算案에대한 增額 豫算費目新
設및 修正動議에대해서 同意한다는 通知가 왔
읍니다

단기四二九三年六月十八일

국무총리 허정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윤호병

국회민원의장 파상훈 귀하

단기四二九三年도 제一회추가개정예산

에대한증액예산비부실실및수정동의에

관한건

단기四二九三年六月十七일자 민의 제一四七호로
동의요청한 본건에 關하여 단기四二九三年六月
十七일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귀요청과같
이 동의하기로 하였어오니 이에 통보함

六月二十一日字로 良民虐殺事件 眞相調査特別委
員會 委員長 崔 天驥員으로 부터 同事件眞相
調査 報告書가 提出되었읍니다

禮紀四二九三年六月二十一日

良民虐殺事件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崔天

民議院議長 貴下

良民虐殺事件眞相調査報告에關한件

標題之件 去五月二十三日 第三十五回國會 第十
九次 本會議의 決議로 委任하여주신 良民虐殺
事件眞相調査에 關하여 去六月十八日 第四十次
本會議에 報告書를 提出하였다가 撤回한바 있
으므로 二眞相을 다시 茲에 別冊과如히 更爲
報告하나이다

(附錄參照)

이 報告書는 速記錄에 掲載해서 配付해드리겠
읍니다
六月二十日字로 大邱西門市場 火災事件調査 特
別委員會 委員長 曹逸煥議員으로 부터 同火災眞
相 調査報告書를 提出해왔읍니다

禮紀四二九三年六月二十日

大邱西門市場火災事件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曹逸煥

民議院議長 貴下

大邱西門市場火災眞相調査報告및政府에
對한建議案提出에關한件

標題之件 六月十七日第三十五回國會 第三十九次
本會議의 決議에依한 大邱西門市場 火災事件에
對한 眞相報告와 政府에 對한 建議를 別冊과
如히 提出하나이다

(附錄參照)

이 報告도 亦是 速記錄에 掲載해서 配付해드
리겠읍니다

六月十八日字로 梁一東議員外 二十一人으로부터
不法·不正蓄財에 關한 質問要旨書가 提出되었
읍니다

禮紀四二九三年六月二十日

民議院議長 郭尙勳

國務總理 許政 貴下

不法不正蓄財에關한質問要旨書移送의件

禮紀四二九三年六月十八日字 梁一東議員外 二十
一人으로부터 別紙와 如히 質問要旨書가 提出
되었어유기 茲에 移送하오니 國會法 第六十六
條에 依하여 答辯하여주실을 바라나이다

不法·不正蓄財에關한質問要旨書

經濟的活動을 正常化하기爲하서 左記事項을 質
問하오니 될수있는대로 來六月二十二일까지 回
答하여주시기바람

記

一、不法蓄財과不正蓄財의界限如何

一、生産活動을 委縮시키지않는 方法으로 調査
를 進行시킨다고 發表했는데 二具體的如何

一、自首期間을 延長한다는說이 있는데 事實인가
事實이라면 언제까지를 考慮하는가
一、經濟審議會의 構成目的과 權限은 어떠한것인가
一、自首者에對한 具體的取扱方法과 自首者에對한 措置如何
四二九三年六月十八日

提案者 梁 一 東

- | | | |
|-----|-----|-----|
| 丁奎祥 | 李鍾南 | 柳珍山 |
| 趙漢栢 | 徐廷賞 | 朴海楨 |
| 洪鳳珍 | 閔寬植 | 鄭成太 |
| 金正煥 | 鄭重燮 | 桂洙淳 |
| 崔 天 | 李榮俊 | 金 勳 |
| 尹 潭 | 金彰東 | 田泳奭 |
| 高湛龍 | 權仲敦 | 金載坤 |

이 要旨書는 國會法 第六十六條에 依해서 政府에 移送해서 答辯을 要求했습니다
報告는 以上입니다

○議長(郭尙勳) 運營委員會에서 運營委員長 報告로 會期延長에 관한 案입니다

이것을... 運營委員長 다른것도 오늘아침에 된 것 報告할것 있습니다가?
그러면 兼쳐서 報告한 뒤에 이것을 決定하겠습니다

(會期延期에關한決議案)

(上午十一時)

○運營委員長(李成株) 오늘아침 運營委員會 會議事項에대해서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대해서는 選舉法이 二讀會를 進行中에있고 그以外에 選舉法이 끝나면 政府組織法

다음에 警察法 地方自治法 이런 順序로 前에 議事日程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現在 앞으로 國會成員關係도 勸案을해서 選舉法 끝나면 政府組織法 다음에 警察法 하고 地方自治法을 바꾸어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데 意見의 一致를보아서 議事日程을 앞으로 바꿔서... 即 警察法을 먼저하고 地方自治法을 審議하도록 이렇게 오늘 合議를 보았습니다

또 政府에서 國會議長에게 이 民議員選舉와 參議員選舉를 同時에 하느냐 안하느냐의 與否를 國會가 決定을 할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는 議長任의 말이 계시서 오늘 거기에대해서 마침 元容與議員外 二十人으로부터 國會議員 同時選舉에 대한 建議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議事日程에 選舉法 다음에取扱하도록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前에 이 國會會期延長問題에 대해서 제가 報告말씀 드릴때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會期는 六月末까지 會期를 延長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의 理由는 選舉期間中에 亦是 國會會期를 延長措施를 해가지고 休會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合意를 보았기때문에 三十日을 延長을 안하고 六月末日까지 하고 이번 二十日頃에 열리는 本會議에서 다시 七月一日부터 民議院 選舉하는 날까지 會期延長을 하도록하자 이런 合意를 보았기때문에... 그때에 그렇게 決定되었습니다

해서 오늘아침에 運營委員會에서는 앞으로 政府에서 議長께 傳해진 말씀에 依하면 選舉日字는... 日字公告는 二十五日이나 二十六日頃에

政府가 公告를 하겠다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대개 二十五日이나 二十四日頃이 選舉日이 되지않을까 해서 七月초하룻날부터 七月二十五日까지 會期延長을 하고 休會를 하도록 하자 하는데 合意를 보았습니다 해서 그 報告의 말씀을 지금 드리됩니다

○議長(郭尙勳) 이제 運營委員長 報告말씀 마 찬가지로 이제 本會議에서 내가 여러분께約束을 했습니다
過去에도 이 選舉公告日字때문에 우리 議員들이 이라는지 또 一般 出馬할 생각이라든지 國民들이 대단히 그것을 確實한것을 잘몰라서 二十二日이라고 했다가 二十三日이라고 했다가 確實性이 없는 까닭에 잔실히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 行政府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國會에서 二十五 六日間으로 希望을한다고 하면 行政府에서는 反對한理由가 없소 國會에서 指定한대로 하겠습니다 하다는 公約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줄 알아주시고 運營委員長의 報告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會期延長에 있어서는 運營委員會案으로서 七月一日부터 二十五日까지 그러면 아마 이 選舉公告해서... 選舉끝나는날... 選舉運動을 始作하는날까지에 거진 그렇게 되어있을니다
하나가 여기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의 意思를 묻고 이것을 處理하고 다음에 身上發言이라든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運營委員會의 會期延長案에대해서 異議없습니까?
(없소)하는이 있음)

내! 異議 없으시면 이 運營委員會案을 通過
한것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金善太議員이 身上
에대한 發言을 要請했습니다 나와서 해주세요

(議員身上에關한報告)

(上午十一時六分)

○金善太議員 오늘아침 都下 各新聞에 大端
히 有名한 記事를내서 한편으로는 大端히 좋
게도 생각하고 한便으로는 나쁜點도 있고해서
이것을 不可不 解明 안할수가 없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어제에는 우리
盟邦인 美國 「아이젠하워」大統領이 이 나라를
親히 訪問해가지고 歷史의인 韓美親善關係에 新
紀元을 만들었다고해도 過言이 아닐만한 그러
한 重大한 行사가 있었읍니다

우리 國會에서는 午前會議는 하지들 아니하고
午後 二時半에 登院을 해달라하는 議長의 要
請으로 「아」大統領은 時時二十分에 國會에 到
着을 하실것이나 여러가지 準備關係가 있고해
서 우리 國會議員들은 二時半까지 登院해달라
하는 付託을 받았읍니다 本人은 무슨 事情이
있고해서 二時半에서 五分 조금 지난 二時三
十五分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世宗路를 通해서

오려고 했었읍니다 二時三十五分 조금 지난
무렵에 世宗路... 光化門郵遞局앞에를 오려고 하
니까 警察官들이 많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勿
論 다른사람도 있었읍니다마는 車를 停車를해
서 못가게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것은 내가
잘 알지만 나도 二時半에 登院을 하라고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있으나 좀 늦어서 그러는데
지금 登院을 하는 길이다 가야겠다 그랬더니
警察官들이 하는말이... 여러분들 警察官 버

르쟁이 앞지 않아요... 안돼요! 그러다는 말
이야 왜 안되느냐 그랬더니 모든 車輛은 絕
對로 出入을 禁하게 上部의 指示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車가 一般 「택시」라든지는 안
다니지만 여러가지 車가 왔다 갔다 다했읍니
다 國會앞으로도 來往을하고 西大門쪽에서도 오
고 中央廳으로도 가고 그래서 아마 三等國會議
員이니까 賤待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車들이 모두 通行을 하는데 惟獨 內車만
못가게하는것은 무엇이나 나는 다른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國會議員으로서 國會에 登院을하
는 길이다 「아이젠하워」大統領을 歡迎하는 場
所에를 내가 國會議員으로서 가는것이다 아
래 國會議員이면 第一이요 하면서 暴言을한다
그런 얘기에요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勿論 巡
査를하고는 사이가 나쁜 사람인줄 알지만 그
사람들이 요새는 좀 풀이 준어가지고 대개는
그러지 아니한데 아 이놈이 度가 지나치게 하기에
안돼? 너 안된다는 法的根據가 어디가있느냐 너
도 上部의 指示를 받아가지고하는 公務를 말
아가지고있는 者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大韓民
國의 國會議員으로서 國會에 登院하는 公務를
지금 하고있는것이야 이놈들이 아무리 上司의
指揮를 받아가지고 機械의으로 움직이는 놈
이라고 하더라도 外國사람車면 장사해먹는 사
람車도 저렇게 함부로 돌아다니고 新聞社車 들
아다니고 政府의 官字든 車는 돌아다니고 그
래도 國會議員車니까 못간다는 말이냐? 萬一
交通을 생각올해가지고 무슨 車輛이든지 車輛
은 一切 그리 못간다고하면 저러한 車도 안
가야될것이 아니냐 車扶하게 다른車가 다니
니까 나도 들어간다 그런 말은 아니냐 너희

들 하는것이 無識하기때문에 내가 이렇게하는
것이야 덮어놓고 아되요 國會議員도 아되요 화
가 나기에 내가 이놈의 자식이 뭐냐고 내가
따귀를 한대 올렸읍니다 따귀 한대쯤은 말이
야 저희들한테 우리가 賞하고 맞은것을 생각
하고는 한 十萬分之一밖에 아되는거예요 十萬
分之一도 못돼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그렇게
해놓고 너 누구나 했더니 이놈 摩南局에서 왔
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너희들은 그
말이지 마산에 와서 銃을 가지고 巡査들은 말
이냐 馬山에 와서 銃을 가지고 全國民을 無
差別掃蕩戰을 해가지고 馬山市民을 限定없이 죽
이고 병신 만들었는데 馬山에서 남의 高等
女學校卒業한 女子를 公的인 場所에서는 말안
했지만 私的인面에서는 나한테... 「즈로스」까
지 밧졌다 그거예요 치마를 올리고 「즈로스」
를 밧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푸들겨가지고 해
서 엉뚱이가 푸른것이 얹어가지고 있는것을 나
는 보았던말이에요 밤에 가서 보았던 말이에
요 또 馬山에서 나한테 便紙가 오기를 「馬山
에서 올고있는 한女性」이라 해가지고 金善太議
員님 世上에 내가 인제까지 李承晚政權下에서
죽지못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말하니까 열아홉
살먹은 말이 있다 그거예요 過分한 말이 있
는데 몸이 不便하고 生活이 困難하고 해서 일
가정에 三月十五日날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놈
들이 巡査들이 잡어가지고 警察署에 불들어가
가지고 너 이년 「레모」하러 나왔지 해가지고
警察署에 불들어 가두었다 말이예요 밤중에 이
것을 끌어내가지고 拷問을 하면서 이년 내가
내말을 안들었다가는 너는 없다 이래가지고 旅
館 뒷방에 메리고가서 強姦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에 가는
場
아
래
國
會
議
員
이
면
第
一
이
요
하
면
서
暴
言
을
한
다
그
런
얘
기
에
요
나
는
생
각
하
기
를
내
가
勿
論
巡
査
를
하
고
는
사
이
가
나
쁜
사
람
인
줄
알
지
만
그
사
람
들
이
요
새
는
좀
풀
이
준
어
가
지
고
대
개
는
그
러
지
아
니
한
데
아
이
놈
이
度
가
지
나
치
게
하
기
에
안
돼
?
너
안
된
다
는
法
的
根
據
가
어
디
가
있
느냐
너
도
上
部
의
指
示
를
받
아
가
지
고
하
는
公
務
를
말
아
가
지
고
있
는
者
인
지
는
모
르
지
만
나
도
大
韓
民
國
의
國
會
議
員
으
로
서
國
會
에
登
院
하
는
公
務
를
지
금
하
고
있
는
것
이
야
이
놈
들
이
아
무
리
上
司
의
指
揮
를
받
아
가
지
고
機
械
的
의
로
움
직
이
는
놈
이
라
고
하
도
러
도
外
國
사
람
車
면
장
사
해
먹
는
사
람
車
도
저
런
게
함
부
로
돌
아
다
니
고
新
聞
社
車
들
아
다
니
고
政
府
의
官
字
든
車
는
돌
아
다
니
고
그
래
도
國
會
議
員
車
니
까
못
간
다
는
말
이
냐
?
萬
一
交
通
을
생
각
올
해
가
지
고
무
슨
車
輛
이
든
지
車
輛
은
一
切
그
리
못
간
다
고
하
면
저
러
한
車
도
안
가
야
될
것
이
아
니
냐
車
扶
하
게
다
른
車
가
다
니
까
나
도
들
어
간
다
그
런
말
은
아
니
냐
너
희

말
이
야
왜
안
되
느냐
그
렇
다
면
모
든
車
輛
은
絕
對
로
入
出
을
禁
하
게
上
部
의
指
示
입
니
다
그
라
서
보
니
까
車
가
一
般
「택
시」
라
든
지
는
안
다
니
지만
여
러
가
지
車
가
왔
다
갔
다
다
했
읍
니
다
國
會
앞
에
도
도
來
往
을
하
고
西
大
門
쪽
에
서
도
오
고
中
央
廳
에
도
도
가
고
그
라
서
아
마
三
等
國
會
議
員
이
까
까
賤
待
를
받
았
는
지
모
르
지
만
적
어
도
...
저
車
들
이
모
두
通
行
을
하
는
데
惟
獨
內
車
만
못
가
게
하
는
것
은
무
엇
이
냐
나
는
다
른
데
에
가
는
것
이
아
니
라
國
會
議
員
으
로
서
國
會
에
登
院
을
하
는
길
이
다
「아이
젠
하
워」
大
統
領
을
歡
迎
하
는
場
所
에
를
내
가
國
會
議
員
으
로
서
가
는
것
이
다
아
래
國
會
議
員
이
면
第
一
이
요
하
면
서
暴
言
을
한
다
그
런
얘
기
에
요
나
는
생
각
하
기
를
내
가
勿
論
巡
査
를
하
고
는
사
이
가
나
쁜
사
람
인
줄
알
지
만
그
사
람
들
이
요
새
는
좀
풀
이
준
어
가
지
고
대
개
는
그
러
지
아
니
한
데
아
이
놈
이
度
가
지
나
치
게
하
기
에
안
돼
?
너
안
된
다
는
法
的
根
據
가
어
디
가
있
느냐
너
도
上
部
의
指
示
를
받
아
가
지
고
하
는
公
務
를
말
아
가
지
고
있
는
者
인
지
는
모
르
지
만
나
도
大
韓
民
國
의
國
會
議
員
으
로
서
國
會
에
登
院
하
는
公
務
를
지
금
하
고
있
는
것
이
야
이
놈
들
이
아
무
리
上
司
의
指
揮
를
받
아
가
지
고
機
械
的
의
로
움
직
이
는
놈
이
라
고
하
도
러
도
外
國
사
람
車
면
장
사
해
먹
는
사
람
車
도
저
런
게
함
부
로
돌
아
다
니
고
新
聞
社
車
들
아
다
니
고
政
府
의
官
字
든
車
는
돌
아
다
니
고
그
래
도
國
會
議
員
車
니
까
못
간
다
는
말
이
냐
?
萬
一
交
通
을
생
각
올
해
가
지
고
무
슨
車
輛
이
든
지
車
輛
은
一
切
그
리
못
간
다
고
하
면
저
러
한
車
도
안
가
야
될
것
이
아
니
냐
車
扶
하
게
다
른
車
가
다
니
까
나
도
들
어
간
다
그
런
말
은
아
니
냐
너
희

强姦을 했는데 그것이 그런지 어쩐지 몰랐는데 이놈이 **刑事主任**이 란놈이 **名駒**를 가지고 와서 **寡婦**인 **집은 寡婦인** 저희 어머니집에 와가지고 **當身 書房**이 없지 나도 여기에 혼자 있으니 어떻게 여기에 **下**를 좀 해주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거예요 무슨놈인지 모르는데 그때에는 **當初에 馬山**사람은 **不安恐怖에** 쌓여가지고 **巡查**가 몸을 바쳐라 하면 **마칠地境**이고 **셋가슴** 내놓라 하면 **내날 地境**이라 그거예요 **自己**말이 그렇지않어도 어제 와서 **을고**있는데 무슨 일때문에 우느냐 아마 너무 **拷問**을 당했으니 까 우는가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그제가 왔다가 **간뒤에** 저희말이 **自白**을 하기를 어제 저녁에 내가 불들려가서 **그놈한테** **賞**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母子**가 불들고 우리 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醜雜한**일을 **當**하고 있어서 무엇하니 그러니 **들이** 다 죽어버리자 그랬으나 **죽을수**없어서 **生命**을 부지하고 있다 고 해가지고 **그名駒**을 **넣어**가지고 **便紙**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냈단**말이에요 이러한 **李承晚**敗殘 **暴徒**들이 **馬山**에 가지고 **無差別射擊**을 해가지고 **적어도 千**「**메**」**터**「**이**」**까지** **追擊**을 해가지고 **불쌍한** 우리國民을 **死傷**해가지고 **强姦**하고 한 이러한 **李承晚**徒黨들이 **말**이야 **오늘날** **이**자리에 **와**가지고 **산**것만 해도 **多幸**이지 무어니 뭐니 해가지고 **떠들**어? 「**메**」**」**를 해? **날**더러 **謝**禮를 하라고 그래? 나는 그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이**니까 **慶南警察**局놈들이라고 해서 **어**쩐지 **나**를 **集中**으로 **侮辱**을 하고 **그**래 **都大體** **國會議員**이 **누**군지도 **모**르고 **警察官**이 **此**際에 **있**어가지고 **國會議員**을 **그**렇게

辱할수가 없다 했는데 **그**놈들이 **全部**가 **馬山**에서 **왔**단말이에요 **나**를 **잡**아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强姦**도 하고 **殺人**도한 **二** **徒黨**들이란 말이에요 **그**놈들이 **난**을 **뻔**히 **알**고 **저**기에서 **막**도록을 **피**부었다 **말**이에요 **어**러분! **國會議員**이 **登院**을하는데 **沮止**할 **法**이 **무**엇입니까? **내가** **恒**常하는 **애**기이지만 **大韓民國法律**대로 **니다** **그러**나 **國會議事堂**앞에는 **政府各部**長官을 **車**는 **다** **여**기에 **갓**다 놓고 **다** **무**사히 **通**過시키고 **外國**사람車는 **다** **自由**스러이 **보**내고 **國會議員**車를 **못**가게해: **그**런 **역**적놈 **자**식들이 **나**한테 **電**話를 **걸**어가지고 「**메**」**」**를 하겠다 **包圍**하겠다 **무**일하겠다: **저** **내** **李承晚**이 **살**아 있을때도 **내가** **正**堂堂히 **목**숨 **걸**어 **가지**고 **싸**운 **사**람이야 **敗殘**暴徒들한테 **내가** **맞**아 죽는 다 하더라도 **全國民**의 **원수**인 **이**놈 **巡查**놈들한테는 **내가** **生命**을 **내**걸어싸워: **좋**아오라: **馬山**에서는 **우리** **원수**들을 **죽**일애주시요 **하**는 것이예요 **원수** **國民**의 **원수**: **國民**의 **원수**라는 **놈**들이 **이**놈들이 **蠢**動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反**革命勢力 **反**動分子들 **이**런 **놈**들이 **나**서 가지고 **오늘**날 **뭐** **이**런 **소리** **그**소리를 **해**가지고 **우리**집을 **包圍**해서 **무**일하겠다: **大韓民國**이 **아**무리 **李承晚**때에는 **不**法天地요 **大韓民國** **法**이 **장**때라고 하지만 **오늘**날 **貴**重한 **의**를 **출**린 **學生**들이 **儼**然히 **있**음에도 **不**拘하고 **요**놈들이 **아**직도 **反**動해가지고 「**메**」**」**를 해 **무**엇을 해: **巡查**들이 「**메**」**」**를 해!
銃과 **칼**을 가지고 **國民**들을 **괴**롭게하고 **이**나라 **를** **亡**치고 **國民**을 **다** **죽**인 **놈**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메**」**」**를 해! **內務**長官 **무**엇하는 **놈**이야! **政府**가 **무**엇하는 **것**들이야! **이**따위 **것**을 **해**가지고: **내** **名譽**스런 **놈**입니다 **나**는 **아**무리 **지금** **李承晚** **政權**의 **殘**滓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은** **官公吏**들이 **그**랬다고 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國民**의 **원수**인 **警察官**들이 **나**로서 **그**랬다는 **대**에 **對**해서는 **적**어도 **國民**은 **同**情하리라 **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慶南警察**局 **놈**들이니까 **나**를 **잡**아가가지고: **내가** **도** **그**것 **告**訴를 **했**어요 **앞**으로 **그**것들 **가**만히 **두**지아니할 **作**定이에요 **强姦**한 **놈** **殺人**한 **놈** **가**만히 **두**어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大韓民國**의 **特**殊한 **與**件이 **그**런 **어**러가지 **를** **지금** **不**許하고 **있**는 **形**便이어서 **우**리가 **지금** **점**잔하게 **점**진적으로 **秩**序를 **維**持해가면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大韓民國**을 **都大體** **亡**쳐 **놈**들이 **누**구나 **말**이에요 **李承晚** **博**士도 **잘**못했지만 **果**然 **李承晚**博士를 **저**따워 **로** **저** **地境** **만**든 **놈**이 **果**然 **누**구나 **말**이에요 **여**기 **에** **앉**아 **계**신 **自由**黨議員 **여**러분을 **亡**치는 **사**람이 **果**然 **누**구나 **그**말 **이**예요!
그런 **놈**들이 **오늘**날도 **일**호의 **反**省의 **빛**깔이 **없**이 **警察官** **놈**들이 **銃**만 가지고 「**메**」**」**를 해? **金**善大를 **죽**여? **좋**아! **나**는 **國民**이 **내**뒤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말 **이**예요 **적**어도 **警察官** **相**對하는 **面**에 **있**어가지고는 **나**는 **全國民** **이** **내** **뒤**받 **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요런 **놈**들이 **武裝**을 **해**가지고 **밤**중에 **通**行禁止時 **間**이 **넘**었는데 **나**한테 **電**話로 **脅**迫을 하고 **지금** **집**에 **곧** **到**着한다: **到**着하면 **어**쩐 **대**야! **우리**

洞思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 그까진 巡査놈같은 것은 개죽이듯이 다 죽어버릴 自信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놈새끼들이 산것만도 多幸하지를 못하고 이問題에 있어가지고는 나는 議長제가 말씀드릴니다

내가 萬一 法的으로 잘못한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적어나마 五래비 法律家입니다 法律에 내가 저촉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法治國家인 大韓民國에서 違法處斷을받아야 한것이야 萬一 그놈들이 自己 職務아닌 混亂時期에 「대모」를 해가지고... 學生들이 「대모」를 한다하니 巡査가 「대모」...!

제기 제정애가 오빠하니가 사내가 오빠한다는 式으로 참 丁口竹天이요 참 어찌구니없는 애기야 國民이 自己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제가짓 놈들이 「대모」하면 同情한사람이 果然 한사람이나 두사람이나 있어?

東亞日報에서는 아주親切하게도 뭐 나를 謝通시킨다 뭐 處罰시킨다 處罰해줘야! 하지만 어저께 「대모」를 실행해가지고하는이 敗殘暴徒들이런놈들은 國會로서도 나는 그대로 있을수없다 생각하는것이고 나는 내대로 國會議員이 法的으로 自己 權限을 가지고 公務를 執行하는 國會尊嚴하는것을 阻止시킨 이런 責任者는 나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國會議長은 이것을 慎重히 다루어가지고 善處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러분들... 自由黨議員어러분들도 當身들이 누구때문에 身勢가 亡했다는것을 잘알아야합니다 그런 과외들이 그렇

했다면 自由黨議員들이 어러분이 同情한것같아서 그랬지만 어러분이 萬一 眞相을알다고하면

同情한 餘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러분이 어저께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다른사람은 다 다니는데 國會議員車만 못다녀... 나는 못다녔습니다 어저께 가면 巡査가 잡고 저기가면 巡査가 잡고... 通行證이 있으면... 그때 大韓民國 國會議員車가 共産黨車요 저지車요 아 비록 通行證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事務次長한테 그걸 캐내려고 하는거요 事務總長한테... 왜 國會議員 車한테 對해서 이런일이 있으니 通行證을 내준다든지 무얼한다든지 해가지고 通行에 對한 便宜를 提供해주어야 된것이데... 가만 두어가지고 國會議員이 발을 딱 묶어가지고 다닐수가 없다 그말이야 이러한 無秩序한... 國會議의 事務節次도 이렇게 無秩序하지마는 警察官이 변히 그사람이 國會議員인줄 알고 國會車인줄 변히 알면서 못가게 막는 이따위 社會... 善國사람이나 英國사람이 온다치면 에 그대가지고 이런 따위놈의 새끼들이 大韓民國의 秩序를 어떻게 잡아 내는거요 이것은 우리 國會로서도 이것은 그대로 있을수없는 일

이 내가 잘못 했는가 어러분이 잘못 했는가 어러분이 그런 地境을 當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잘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잡렷소)하는이 있음) (議長(鄭尙勳) 지금 善大議員의 身上 報告를 엿듣는다 아니게 아니라 어제 警備가 嚴密해가지고 이國會議員 容院時間에 車를 못들여놓고 해서 많은 支障이 있었읍니다 어러분이 다 不便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날을 勿論하고 國會議員이 그時間에 容院하는데 妨害되는 일을 해어가지고는 絕對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警察들이 上部의 命令이라고 해가지고 無識한 所致로서 아마 國會議員까지도 막은 모양이 을시다 이점은 今後에 內務部에 單단히 일러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措置할것이고 (內務部長官을 불러요)하는이 있음) 어러분! 너무 興奮하지 마세요 이것은 內務委員會에서 內務部長官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適切히 措置해서 그렇게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하는것이 옳지 지금 그렇다고해서 內務部長官을 불러서 質問을한다든가 興奮한 狀態에 그러면 오히려 무익한것같습니다 一般에 刺戟도 주는것같고하니 이사람생각에는... (場內騷然) 앉으세요 이사람 생각에는 內務分科委員會가 있으면 內務分科委員會에서 일단 內務部長官을 불러서 한번 調査를 하고 質問한뒤에 그리고 本會議에 報告해주시면 그것이 順序의일과 합니다 (場內騷然) 어러분 어러분 뜻대로 하실것이지 내意思대로 고집할것은 없어요 正式으로 發言權을 要請해서 이 問題를 取扱하려면 말씀 하시고 그렇게 않으면 이 問題를 내면 오늘 하루 그걸 해서 또한 우리의 지금 時間 안남은 時間을 무얼하게되니 같은 效果를 거두기 爲해서는 內務委員會에 말해도 墜跌이 있을것 같습니다 (울소)하는이 있음) (울소)하는이 있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內務委員會에서

간단히 管疑해서 앞으로 이런 버트장머리가 없도록 努力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報告事項 두가지가 있습니다

行政府에對한建議案

一、政府는 民議院 良民虐殺事件調查團에서 調査한 地域은 아니라 該事件調査를 爲한 軍警檢合同搜查本部를 設置하여 良民의 生命과 財産上 損害를 尠 惡質的關聯者 및 被害者와 被害狀況을 早速한 短時日內에 調査한것
二、良民의 生命、財産上被害를 尠 惡質的關係者의 嚴重한 處斷과 被害者에 對한 補償制度를 設定하기爲하여 既存法律에 依한 一事不 再理原則이나 時效의 抵觸規定에 關係없이 特別法으로 假稱「良民虐殺事件處理特別措置法」의 制定을 促求한다

—(良民虐殺事件에關한建議案)—

(上午十一時二十一分)

(議長(郭尙勳)) 먼저 良民虐殺事件真相調查特別委員會의 報告가 있고 또 하나는 大邱火災事件에對한調查報告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案件에對해서는... 報告에 對해서는 이미 印刷物이나와서 여러분에게 다 配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報告를 하신것같이 印刷物을 朗讀하는데 그칠것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 建議가 있습니다
두特別調查委員會에 良民虐殺事件特別調查委員會가 調査한 結果를 政府에다가 이렇게 해라하는 建議案이 있고 또 大邱火災事件에 대해서

도 또한 建議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油印物이 여러분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調査報告는 速記錄에 남기고 그리고 이建議는 우리 本會議에서 可決해가지고 政府에 回送을하는 것이 좋을것같아서... 그러면 이報告는 朗讀하는 것을 省略하고 이建議文만 議決하도록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소」하는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建議文도 먼저 良民虐殺真相報告書에 調査한 結果 政府에 이렇게 해라하는 建議文도 油印物이나와 있습니다

記錄해서 남기고 이建議書에 대해서 政府에提案하는데 異議없습니까?
(「異議없소」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이 建議書대로 可決된것을 宣布합니다

大邱西門市場火災事件復舊對案에關한建議案

主文

一、保健社會部長官、內務部長官、商工部長官、財務部長官은 救護 臨時開店 融資再建에關한對策委員會를 設置할것
一、法務部長官은 許市長의 不法處事를 調査處理할것
一、內務部長官은 消防作業의 遲延에對한 責任을 밝히려 人事措置할것
一、保健社會部長官은 露店 零細商人에 對하여 臨時店舖用天幕을 支給할것

一、財務部長官은 災害地區 罹災者에對한 税金의 免稅 或은 減免措置할것
一、國防部長官은 災害地區의 整地再建工事に 軍重機 및 工兵隊로 하여금 支援케 할것

—(大邱西門市場火災事件에關한建議案)—

(上午十一時二十分)

(議長(郭尙勳)) 또하나 大邱火災事件에 대해서 調査한 結果 그調査에 依해서 政府에 建議하는 것이올시다
이것도 油印物이되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줄입니다 이것이대로 通過시켜서 異議없습니까?
(「없소」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그대로 通過된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議事日程第三項 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이 지금 案件에 대해서 朱耀翰議員이 特別히 이 案件에 대한 議事進行에 대한것을 發言要請했습니다

—(國會議員選舉法案)—

(上午十一時二十五分)

○朱耀翰議員 이 議事日程第三項 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를 繼續하는데 있어서 本議員은 이 國會議員選舉法과 第四項으로 나와 있는 國會議員同時選舉문제와 대단히 密接한關係가 있기때문에 이 選舉法의 最終 決定이라 하는것은 第四項이 左右間 決定이 나기前에는 이것을 이대로 通過시킬수없다고하는 생각은 가졌기때문에 二讀會가 完了되기前에 議事進行으로 한 말씀 드릴려고 올라왔던것입니다

제가 알기까지는 第二讀會에 있어서는 現在에
 는 附則에 대한 것만이 남아있고 그 나머지는
 이미 二讀會가 完了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萬一에 國會議員을 民議員과 參議員을 同
 時에 選舉한다고 하는 據에는 이 選舉法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確信을 가졌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可能하면 이 두
 議事日程을 바꾸어서 우리가 審議를 하든가 그
 령지 않으면 二讀會가 이미 通過된 條項에는 關
 案動議를 내가지고 다시 이것을 修正案을 내
 서 修正하고자 이것을 採擇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憲法 改正을 通過시키고 早速한 時日
 內에 새로운 政府를 樹立하겠다고 하면 그 改
 正의 精神이 沒却되지 않을까 하는 念慮를 가
 졌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옵시다
 憲法改正案을 우리가 通過시킬 때에 거기에 民
 議院議員은 이 憲法이 實施되는 그로부터 四
 十五日以內에 選舉를 行한다 參議員은 六個月
 以內에 選舉를 行한다 이와같이 規定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趣旨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번 新政
 府 樹立에 있어서는 民議院議員만을 먼저 選舉
 해가지고 그 民議院議員이 大統領을 選舉하고
 國務總理를 認准을 하거나 選出을 한 뒤에 그
 國務總理가 內閣을 組織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八月十五日以前에는 完全한 새로운 內閣
 이 樹立이 되어서 過渡政府로부터 政務를 리
 繼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憲法改正의 趣旨과
 고... 精神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바이옵시다
 그래서 最終의 民議員 選舉를 憲法改正 公布
 實施된 後 三十日以內에 한다 그런 草案이

나왔던 것인데 政府當局에서 三十日以內에는 到
 底히 選舉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
 문에 그 當時에 우리가 內務部長官을 불러서
 證言을 들었고 나중에 院內幹部와 行政府의
 當局者들이 모여서 議論한 結果 서로 誠意를
 다해서 적어도 四十五日以內에는 民議員選舉를
 하자 이와같이 作定된 것으로 本議員은 記憶하
 고 있는 것이 옵시다.
 그래서 지금 同時選舉를 하느냐 따로 따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意見
 들이 많이 있는데 同時에 選舉하고자 하는 建
 議案이 나왔는데 어떤분은 憲法의 새로운...
 改正된 憲法의 精神이 이것을 同時에 選舉하
 는 것이 아니라 民議員만 먼저 選舉하고 參議
 員은 나중에 選舉하는 것이 憲法改正의 精神이
 니만큼 이제 萬一 同時에 選舉할 것 같으면 그
 것은 憲法 精神에 違反이다 나중에 違反 判
 決이 날 念慮가 있다 이와같은 主張을 하는
 분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까지는 二 憲法精神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理論은 憲法을 改正하
 는 起草委員會의 起草精神이 그런데 있었다고
 말한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무슨 精神이나 하면 方今 말씀드린 바
 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데도 短時日以內에 새로
 政府를 組織을 해서 이 空日 期間을 短縮을
 하자! 이것이 起草委員會의 精神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바이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四十五日以內에
 적어도 七月末日 以內에 選舉를 한다 그러면
 八月初旬에 國會가 成立이 되고 거기에서 大

統領을 選舉하고 國務總理를 認准을 하거나 選
 出을 해가지고 새로운 內閣을 組織하면 늦더
 라도 八月十五日에는 새로운 政府가 樹立이 되
 고 過渡政府가 引繼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것이 우리가 現在 가지고 있는 目標요 또 國
 民 여러분이 그와같이 이것을 待望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萬一 八·一五 前에 政府가 樹立되고 九
 月이나 十月까지 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國
 民 여러분도 失望 할 것이고 政治自體... 行政
 自體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좋지 못한 영향이 일
 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 하고 있
 는 바로 아는 바이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起草精神에 따라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民議員과 參議員을 따로 따로 하 選舉
 하는 것 밖에는 道理가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
 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 國
 會議員選舉法을 이대로 우리가 採擇을 하는 경
 우에는 政府樹立이 속히 되지 못하겠는가? 이
 것은 여러분이 이 選舉法에 붙들 것 같으면 제가 여
 러가지로 생각 해본 結果에 如何한 方法을 取
 하는지 參議員選舉를 七月末日에 한다고 하더
 라도 그 計票期間은 적어도 三十日 以上 걸
 려야 된다고 하는 結論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八月末에 가지 않으면 參議員 計票가 되
 지 않는다 그러며는 國會는 九月末에 가서야 비
 로스 成立이 된다고 하는 結論을 얻었읍니다
 어떤분은 말씀 하시기를 民議員 한사람... 單
 記式으로 한사람을 選舉하고 參議員은 가장 많
 은 區域에서 다섯 사람까지 選舉... 열사람

選舉하게 되는것이고 또 거기에 記票는 半數까지를... 全員의 半數까지를 積을수 있다 고 그러니까 다섯사람까지 積을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러면 다섯사람까지 當落이 決定하는데는 民議員에서 所要되는 計票時間까지 五倍하면 될수가있다 그러면 民議員選舉가 하루에 計票만 完了된다고하면 參議員이 다섯이면 된다 이와같은 議論을 하신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선 절대로 그렇지않습니다 民議員選舉때에 있어서는 投票用紙 하나를... 投票用紙全體를 가지고 한번 이것을 區分할것같은데 되는것이요 從來의 慣習에 의지해서 같은 立候補者에게 記票한것을 百張씩 묶어가지고 쌓아올린뒤에 百張 百張 세어서 누가 票가 많았다 하는것을 決定 하는것이올시다 그러나 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적어도 五名까지는 連記式으로 記票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것을 計算하는것이 民議員選舉때에 投票用紙를 區分 해가지고 하는 方法으로는 도저히 할수가없는 것일니다 그러면 한 選舉區에 적어도 아마 많은有權者가 있는 選舉區에는 적어도 七萬張以上の 投票用紙가 必要 하리라고 봅니다 七萬張以上の 投票用紙에 다섯사람까지 記票한다고 할것같은데 三十五萬番을 부르지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도저히 投票用紙를 가지고 가위로 잘려가지고 한다는가 이것은 도저히 안될것이고 不得不 이것은 일일이 呼名해서 計票하지않으면 안되고 三十五萬番을 呼名한다고 할것같은데 計算은 하루일時間씩 勞動을 해가

지고 三十日인가 걸립니다 이것을 短縮할 方法은 도저히 없읍니다 書類上으로 이것을 或은 一番에 記票한 사람을 먼저 추려 내가지고 그것을 計算하고 珠盤에 나올것같은데 다시 그것을 돌려 두번에 記票한것을 또 골라내자 이런 方式을 애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다섯번만 計票를 하는것이 아니라 十名의 定員이 있는 어떤 道에 있어서 적어도 立候補者가 三十名이 된다고 하면 서른番 이것을 計票 하지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候補者別마다 그렇다고 할것같은데 民議員選舉가 한번 計票를 하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三十名... 서른번 計票하는데 있어서는 亦是 三十日이 걸리는것일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지에는 如何한 方法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수가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몇가지 方法이 있는줄 압니다 첫째는 參議員選舉를 連記式으로 하지아니하고 單記式으로 하면 될수가 있는것일니다 單記式으로 할것같은데 民議員과 마찬가지로 間 적어도 二十四時間 以內에 當落이 決定이 남수가 있는것일니다 또 둘째의 方法은 參議員選舉에 連記式으로 하더라도 開票만은 選舉區에서 開票를 하지아니하고 投票區에서 開票를 하면 될것일니다 投票區에서 開票를 한다고 할것같은데 計算으로는 적어도 四十八時間 以內에 各 投票區의 開票結果가 나옴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選舉區와... 道選舉區와 中央選舉委員會를 通해

가지고 發表되는것이 四十八時間 以內에 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은데 이 國會議員選舉法이 第二讀會 通過된 이 條項 가운데에서 參議員選舉를 連記式을 單記式으로 고친다는가 또 그렇지아니하면 參議員選舉의 開票는 開票區에서 하지아니하고 投票區에서 한다고 이 條項을 고치거나 그렇지 아니한것 같은데 도저히 參議員選舉와 民議員選舉 投票를 同一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開票에 있어서 적어도 三十日의 差異가 있다 그러면 國會는 우리가 七月三十日에 總選舉를 同時에 한다 하더라도 九月初旬에 가지 않을것 같은데 國會가 成立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政府가 成立되는것은 九月初旬이나下旬에 가서야 政府가 樹立이 되는 矛盾을 가지게 되는것일니다 또 그뿐만이아니라 이것은 뒤한個의 節次上的의 문제 옳시다마는 여러분이 改正... 새로이 提出된 國會議員 選舉法案 第一百二十二條를 볼것같은데 百二十二條第三項에「開票가 끝났을때에는 投票區別로 投票紙를 有効無效로 區分하고 有効投票紙는 다시 候補者別로 區分하여 各各 封套에 넣고 區、市、郡選舉委員會 委員長과 出席한 委員 全員이 封印하여 한다」이랬읍니다 그러면 有効投票에 대해서는 候補者別로 區分하라 했는데 參議員은 萬一 連記式이 된다고 할것같은데 候補者別로 區分할 道理가 없는것일니다

그것은 例外로 認定을 해서 參議員에 限해서
는 候補者別로 區別해서 封套에 넣을 必要가
없다고 勿論 解釋이 됩니다마는 法인 以上에
는 亦是 이條項도 고쳐서 參議員 選舉 때에는
候補者別로 區分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것을
여기다가 밝혀야 될줄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最少限 문제입니다

何如間에 萬一 民議員과 參議員選舉를 同時에
한다고 할것같은면 이選舉法 二讀會가 完了된
이選舉法을 다시 우리가 議案을해서 이 몇가
지 條項中에 한 두條項을 修正하지 아니하면
우리 政府樹立은 한달以上 遲延되는 이點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줄 압니다 本人은
同時選舉에 대해서 原則으로 贊成을합니다 過
去에 八年동안 憲法에 兩院制로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參議員을 選舉하지 아니해서 結局바
리 國會를 만들었다고 하는것을 우리가 第二
共和國의 새로운 政府를 樹立하는데 또 절름
바리 國會를 만든다고 하는것은 本人은 反對
을시다

그러니만큼 同時選舉는 本人이 贊成합니다 贊
成하는니만큼 지금 이第三項 國會議員選舉法審
議를 中止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議案動議를
내어서 第二讀會를 다시 進行을 해가지고 지
금 말씀드린 몇개의 條文을 어느것이냐... 그
中에 어느것이냐 修正을 해서 參議員 民議員
同時選舉를 七月末까지에 舉行해가지고 적어도
늦어도 八月十五日까지에는 우리가 新政府를
樹立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서 이것을 停
會를하고 各派代表가 議論해주시든가 그렇지아

니하면 議事日程 第三項과 第四項을 바꾸어서
第四項을 먼저 決定을 지은뒤에 選舉法案에
들어갈것을 要請하는 바이을시다
(司會交代)
○副議長(李載滢) 지금 朱耀翰議員께서 議事進
行에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三項과 四項과
를 日程을 바꾸려고 그러면 議事日程變更에
대한 動議를 내셔야 합니다 動議를 안내셨으
니까 取扱을 못합니다
그러면 第三項 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를
그대로 進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本會議에 若干의 進
行上 錯誤가 생겼습니다
議長이 이 原則을 不在者投票을 認定하느냐
안하느냐 이 原則을 處理하자 하는것을 原則
을 묻고서 處理하자 하는것을 表決하자 하는것
으로서 잘못 意思表示를 해서 거기에 錯誤가
생겼던것으로 압니다
오늘 다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贊否討論申請을
하셨으니가 第十七條부터 한다 하는것을 取消을
하고 原則에대해서 贊否討論을 다시 展開한後
에 討論이 終了되면 그때에가서 表決하도록 하
겠습니다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전에는 朴鍾吉議員께서 反對討論을
하셨습니까
(議長)하는이 있음
不在投票을 認定하는데 대한 反對討論을 하
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不在投票制度를 認
定하자 하는 贊成討論을 하겠습니다
李鍾南議員의 修正案에 대해서는 反對討論이

되겠습니다 李泳熙議員 말씀하세요
○李鍾南議員(의석에서)議長! 議事進行입니다
○副議長(李載滢) 李鍾南議員이 提案하신 議案
에대해서 討論을 하는것입니다 進行은 이렇게
시키는것이 옳을것입니다
李泳熙議員 말씀하세요
○李鍾南議員(의석에서) 議事進行인데 왜 發言
아십니까?
○副議長(李載滢) 議事進行은 잘하고있습니다
○李鍾南議員(의석에서) 發言申請 하지않았어
요? 議事進行申請 해놓았습니다
○副議長(李載滢) 요다음에 드리지요
○李泳熙議員 本議員은 不在者投票에 대해서
反對하는 말씀을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왜 反對를 하느냐하면 이번 起草委員會에서
提出한 이 選舉法에 있어서 民議院은 不在者
投票을갖다가 認定하지않고 參議院부터서 認定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總原則부
터서 나는 反對하는것입니다
參議院부터 할것같은면 무엇보다문에 民議院부터
하지아니하고 參議院부터서 實施할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疑問視하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反對하는데있어서 一線地區에
서 軍人이 駐屯해가지고있는 民議院議員들은
나는 여기에 贊成을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二百三十三地域에 흩어져있는 이 選舉
區에있는 사람들... 軍人이 駐屯해가지고 있지
않은 區域에 있어서는 나는 모두가 反對하지
않는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副議長(李載滢) 지금 朱耀翰議員께서 議事進
行에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三項과 四項과
를 日程을 바꾸려고 그러면 議事日程變更에
대한 動議를 내셔야 합니다 動議를 안내셨으
니까 取扱을 못합니다
그러면 第三項 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를
그대로 進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本會議에 若干의 進
行上 錯誤가 생겼습니다
議長이 이 原則을 不在者投票을 認定하느냐
안하느냐 이 原則을 處理하자 하는것을 原則
을 묻고서 處理하자 하는것을 表決하자 하는것
으로서 잘못 意思表示를 해서 거기에 錯誤가
생겼던것으로 압니다
오늘 다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贊否討論申請을
하셨으니가 第十七條부터 한다 하는것을 取消을
하고 原則에대해서 贊否討論을 다시 展開한後
에 討論이 終了되면 그때에가서 表決하도록 하
겠습니다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전에는 朴鍾吉議員께서 反對討論을
하셨습니까
(議長)하는이 있음
不在投票을 認定하는데 대한 反對討論을 하
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不在投票制度를 認
定하자 하는 贊成討論을 하겠습니다
李鍾南議員의 修正案에 대해서는 反對討論이

○副議長(李載滢) 지금 朱耀翰議員께서 議事進
行에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三項과 四項과
를 日程을 바꾸려고 그러면 議事日程變更에
대한 動議를 내셔야 합니다 動議를 안내셨으
니까 取扱을 못합니다
그러면 第三項 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를
그대로 進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本會議에 若干의 進
行上 錯誤가 생겼습니다
議長이 이 原則을 不在者投票을 認定하느냐
안하느냐 이 原則을 處理하자 하는것을 原則
을 묻고서 處理하자 하는것을 表決하자 하는것
으로서 잘못 意思表示를 해서 거기에 錯誤가
생겼던것으로 압니다
오늘 다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贊否討論申請을
하셨으니가 第十七條부터 한다 하는것을 取消을
하고 原則에대해서 贊否討論을 다시 展開한後
에 討論이 終了되면 그때에가서 表決하도록 하
겠습니다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전에는 朴鍾吉議員께서 反對討論을
하셨습니까
(議長)하는이 있음
不在投票을 認定하는데 대한 反對討論을 하
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不在投票制度를 認
定하자 하는 贊成討論을 하겠습니다
李鍾南議員의 修正案에 대해서는 反對討論이

○副議長(李載滢) 지금 朱耀翰議員께서 議事進
行에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三項과 四項과
를 日程을 바꾸려고 그러면 議事日程變更에
대한 動議를 내셔야 합니다 動議를 안내셨으
니까 取扱을 못합니다
그러면 第三項 國會議員選舉法案 第二讀會를
그대로 進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本會議에 若干의 進
行上 錯誤가 생겼습니다
議長이 이 原則을 不在者投票을 認定하느냐
안하느냐 이 原則을 處理하자 하는것을 原則
을 묻고서 處理하자 하는것을 表決하자 하는것
으로서 잘못 意思表示를 해서 거기에 錯誤가
생겼던것으로 압니다
오늘 다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贊否討論申請을
하셨으니가 第十七條부터 한다 하는것을 取消을
하고 原則에대해서 贊否討論을 다시 展開한後
에 討論이 終了되면 그때에가서 表決하도록 하
겠습니다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전에는 朴鍾吉議員께서 反對討論을
하셨습니까
(議長)하는이 있음
不在投票을 認定하는데 대한 反對討論을 하
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不在投票制度를 認
定하자 하는 贊成討論을 하겠습니다
李鍾南議員의 修正案에 대해서는 反對討論이

이 反對하는 理由로서는 지금 各選舉區에서 投票을 하는데 過去에 軍人의 集團으로 있을 때 自由黨이 不正으로 할수 있는 이 機會가 있었다 이따므로 있어서 지금 우리는 各二百三十三區에 대해서 不在者들이 일일이 自己出身區에다가 投票할수 있는 機會를 열어서 이 말은 實情을 實情대로 말해서 委員長으로서 있어서 말이 제정읍니다

그런데 民主黨에서는 이 起草하면서 民主黨執權 때에는 그러할일이 없을것이라고 認定을 해서 그렇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할때 執權黨으로서 있어서 나중에 그런 橫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것을 前提로 말씀 드려 놓고 만 약에 이 集團의으로 不在投票을 갖다가... 不在投票을 하게될때에 集團의으로 그런 憂慮性이 있으니까 分散의으로 할때에는 憂慮性이 없는가 하면 그런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通信網이 完全히 發達되어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執權黨에서 어떤 郵便局長을 하나 買收를 해서 各道에서 오는 봉투紙의 밀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自己들이 執權黨에서 意圖하는 投票者가 아니면 그投票用紙를 燒却한다든지 다른데다가 放置한다든지 해서 投票을 할수 없는 機會를 만든다고하면 어쩔것이나 하는것을 나는 疑心안할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이 投票區에 있어서 民議員을 또는 參議員을 選舉할때에 二年이나 一年以上 駐屯해 가지고 있는 軍人들이 自己 地方選出區에 있어서 다섯사람 여섯사람이 立候補할때에 그사 남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殆半인것입니다

勿論 選舉의 宣傳文을 보내고 한다고 할지언정 自己들이 모르는 사람은 數百里면... 駐屯하고 있는 軍人으로서 自己意思를 反映시키지 못하고 自己들은 앉아서 누구를 썰줄까 하는 이런 心情조차 가질수가 없고 또 따라서 만약에 投票을 하게 된다고 하면 人情에 이끌린다든지 氏族... 氏族에 이끌리는 이러한 自己意思를 判斷못하는 投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있어서 나는 이 集團의으로 몇군데 駐屯해가지고 있는 이 選出區를 살리기爲해서 萬若에 이 不在投票을 한다고 할때는 나는 集團의인 橫暴에서 分散의인 橫暴로 이끌어가지않는가 이런 念慮心을 禁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리해서 이 選出區를 떠난 軍人들은 駐屯해가지고 있으면서 自己區域에 있는사람... 立候補者에對한 投票가 많은 關心을 가질것은 事實인것입니다

그러나 大韓民國에 있어서 을바른 國會議員을 뽑는데 自己 選出區에서 뽑는것이냐 또는 自己가 駐屯한 地區에서 뽑는것이냐 그 駐屯한 地區에 있어서는 政見發表도 들을수가 있고 壁報에서 自己의 主張하는 여러가지의 政見도 들을수가 있고 또한 이 軍隊에는 自己들이 直接 立候補者도 볼수 있는 機會가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機會에 그 投票區에서 가장 을바른 사람을 輿論에 反映시켜서 뽑는것이 國民의으로 있어서 이 權利行使을 하는데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리해서 나는 이 二百三十三區에 있어서 萬若에 不在者投票을 했을때에 내가 前者에 말한바와 같

이 하나의 郵便局長을 利用한다든지 이레가지고서 그 봉투紙의 밀구멍을 뚫아서 萬若에 局限될 이문제가 二百三十三區에 걸친 不在投票가 盛行된다고 하는것을 나는 疑心안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럴까닭에 不在者投票에 있어서는 나는 이러한 몇가지 意見을 갖다가 들어서 反對합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이 내가 與黨生活을 해서 그렇지 모르지만 選出區에 있는 軍人들은 民議員을 찾아와서 내가 一線地區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後方地區에 둘러달라고 하는 이런 請願을 많이 받았읍니다

萬若에 與黨立場에 있는 사람들이 이 行政府에 찾아가서 나는 이러한 사람의 請託을 받았으니 이것을 뒤로 돌려달라고 할때에 與黨에 있는 立場에선 사람의 말을 行政府가 들을것인가 안 들을것인가 하는것은 여러분의 常識에 맡기고 萬若에 그렇다고 하면 與黨立場에선 사람들이 萬若에 自己들의 이러한 手段과 方法으로 있어서 投票... 自己들의 다음 選舉때에 利用할수 있는 이러한 形態로 가져갈 憂慮도 나는 禁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몇가지 條件을 들어서 나는 不在者投票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副議長(李載滉) 다음에 柳珍山議員 말씀하시요
 議事進行하시겠어요 그러면 柳議員 잠깐 기다려주세요 議事進行이 될것입니다 李鍾南議員 소개합니다
 ○李鍾南議員 일찍 討論에 들어가기전에 議

事進行을 하려고發言申請을 했는데 미처議
長님이 못보신것같은데... 제 自身이 잊고저께
한 二·三日前에 內務當局과 國防當局에서 實
地 물어보았읍니다

이것이 可能하냐 안하냐 그런데 內務當局에서
는 實地 그렇게 된다고 할것같은데 거기에 附
隨된 소위 거기에 보낼 모든 節次에 따르는
豫算을 더 計定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自
己네들은 거기에 따르는 豫算을 計定하지않았
다 또 얘기하고... 또 여기에 對해서 萬若에
不在者投票關係를 選舉人名簿를 다시 만들어던
거기에 따르는 指示나 모든것을 새로해야만 되
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名簿라든지 全部 새
로 準備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
기까지 미처 못했다 그러나 이것을 萬若에
한다고 할것같은데 적어도 選舉를 延期하고자고
다시 再調査하지않으면 안되게 생겼다 그러므로
이것은 實價的으로 不可能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國防當局에서도 自己네가 過去에 그 選舉에
對해서 軍高位層에 壓力을 넣거나 이런데에 있
어서는 당연히 駭리 했으면 좋겠는데 實地面
에 있어서 後方에 있는 軍事位置라든지 모든 것
을 明白히 後方에 있는 家族에 안알린데도 있고
또 軍郵便을 보낸다하고자지만 그것이 郵便하는
때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달동안이라도 數百數
千 郵便物이 傳達이 안되어가지고 相當히 時
日이 오래 걸린일이 있었다고 그러니 이런 것
을 綜合해볼때에 그와같은 重要한 投票用紙를
그때 即時 本人한테 傳해가지고 곧 回報한다
는것은 實價的으로 郵便을 擔當하기는 實地 困

難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5日前에 李成株議員은 여기 나오셔서
速記錄이라든지... 그兩班을 말을 들으니까 해
도 좋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는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실지 可能하냐 안하냐 지금 우
리가 앞으로 七月三十日에... 앞으로 四十日밖
에 안남았는데... 幸 選舉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해서 名字를 지연시켜 가면서라도 이것을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이미
지연할수없이 꼭 選舉는 해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자리에 國防하고 內務長官을 오
시라고 해가지고 實價的으로 可能하냐 안하냐
하는것을 한번 충분히 들으면 이것이 참 選
舉에... 조속히 實施해야될 選舉에 可能하냐 안
하냐 하는 명백한 答辯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자리에 議長님께서 內務當局
과 國防當局을 나오시라고해서 여기서 可能하
냐 안하냐 하는것을 한번 묻고서 討論하는 것
이 좋지않을까 해서 議事進行으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李載鏞) 지금 不在投票... 法定으로 選
舉實施할수있는 날은 七月二十九일까지인데 그
것이 可能하냐 안하냐 하는것을 政府當局에 問
議해달라는 要請입니다

議事進行의 常道로 말하면 지금 討論中이니까
質疑가 끝난것이냐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것을 결정 할때까지 質疑가 아니고 政府當局의
證言이 必要하다면 그 證言만은 들을수도 있
는것입니다
다만 이 證言이 議長이 알기에는 몇번 되풀이 된

것같은데 質疑를하지않고 政府의 證言만을 듣는
다고 할것같은데 이것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異議 없소)하는이 있음)
그러나 그것은 院議로 作定할것입니다
(좋아요)하는이 있음)
그렇게 이 討論이 끝나기前에 政府當局의 證
言을 한번 들을必要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
까?

(異議 없어요)하는이 있음)
(네)하는이 많음)
네 그러면 그것은 政府에 연락을해서 討論中
이라도 證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作定했읍니다
그러면 柳珍山議員 討論에 參加해주세요
○柳珍山議員(의석에서)議長! 내가 지금 討
論을 하더라도 萬一 國務委員 證言이 不可能
하다고하는 證言이 나온다고 할때는 討論이
必要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長官이 나온뒤에 討論하는것이 좋지
않아요?
○副議長(李載鏞) 그것도 충분히 理由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政府當局으로서는 충분한 理由가 없이
不可能하다든지 可能하다든지 하는 얘기를 안
할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討論을 展開하지
는것도 相關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政府의 答辯 들을대까지 討論을 中止
할까요?
(그냥 계속해요)하는이 있음)

討論을 계속하시지요 原理를 展開하신다고 그
러면 나중에 政府當局이 더 細密하게 說明이
있을것입니다

柳珍山議員을 紹介 합니다

○柳珍山議員 本議員은 이 不在者投票를 꼭
해야된다는 이러한 政治的 信念과 愛國的 見
地에서 비단 最近에 와서만 이것을 主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랜 옛날부터 다시
말씀하자는 三代末期에 國會議員選舉法 與野
協商 當時로부터 무엇보다도 이것을 強力히 主
唱해 왔던것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外國의 先進國家가 모두가 이
不在者에 대해서 自己의 主權行使를 할수있는
法的保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새삼스
럽게 말씀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서만은 이번의 경우 또는 앞으로 길이 不在
者投票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意見
에 대해서 그동안 傾聽을 해 왔었읍니다마는
이거야말로 俗談에 구태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
지말자 하는 애기와 똑같은것이요 何等의 이것
을 傾聽할 價値가 없는것이라고 하는 이런 自
己의 所信을 먼저 말씀드려 두는것이을시다

첫째 萬一 集團의으로 營內生活를 하는 軍人
에게 그 地方에 있어서 主權行使를 그 地域
主義的인 이 選舉法에 依해가지고 그 地方出身
立候補者에게만 投票를 해라 하는 이制度를 그
대로 우리가 繼續하여 나간다면은 우리 國防
에 대해서 寒心스러운 結果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國防에 대해서 우리가 寒心스러운 結果가 오

고만다 할진대는 우리나라를 維持하는데에 있
어서 우리는 크게 念慮하지 않을 수가 없다
는 그것이에요

여기 와서 不在者投票를 反對하는 여러가지
意見 가운데에 過去는 그러했지만 앞으로는 決
코 不正이 있을수가 없다는 이런 主唱을 하
신 바가 있고 또 오늘에 있어가지고서도 李
泳熙議員이 그러한 例를 들어 가지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는 나는 過去에 不正했고 또
앞으로 不正이 있고 없고를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첫째 그 營內生活를 하는 軍人들에게 選舉運
動이 그 現地에서 일어간다고 하는 이 事實
은 軍人을 腐敗하게 만들교야 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떠한 理論을 가지고서만나도 이
事實만은 아마 否定할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時間에도 一線地區에
서 軍人들의 票를 自己에게 모으고자 해가지
고 或은 將星級을 通해 或은 將校級을 通해
或은 小隊長 中隊 大隊長을 通해 갖은 醜雜한
選舉運動이 展開되고있고 이 結果는 軍人들의
精神을 더지없이 흔들어 놓아 가지고 그대들
이 形式으로는 武裝을하고 服裝을 입고 총대
를 메고 있지마는 마음은 지극히 混濁해있고
흔들려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총대부리들을
고 있는지 그 意識조차도 아마 저바리는 이
러한 두려운 現實이 展開되고 있지않나 하는
것을 크게 念慮하지 않을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렇다면 무엇을 그만두고라도 이軍人들로 하
여금 이 選舉區에 있어가지고 이 選舉運動에

들어 가서 그들의 軍人精神을 호리게하는 이
것은 막아야 될것입니다
이렇다면 原則的으로 現地에 兵役의 軍務에 服
務하고있는 現役軍人에게 그러한 選舉運動이
들어가서는 안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야 宣傳班이 그 營內에 들어가지 않도록
措處를 取할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理論도 나
올수가 있을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논가리고 그
야말로 아용하는格밖에 안된다는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것입니다
여러분 自身들도 다 選舉運動을 해보신바고 또
우리 全體 國民이 다 選舉때에 어떠한 模相
이 벌어지고 있는나 하는것은 우리國民 各自
各自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自己의
當選을 걸고 하는 奇奇妙妙한 갖은 選舉運動
自體는 아무리 營內라고 할지라도 그 軍人들
의 精神을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놓고 호리게
하고 한다는 이 사실만은 아무도 否定하는 사
람이 없을것입니다
이것을 否定하는 理論이 나온다면 나는 不在
者投票를 이렇게 구성스럽게 贊成할 必要가 없
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어떠한 理論을 가지고
서라도 現地에서 軍人들이 그 地域에서 立候
補하는 사람에게 投票를 하는 이러한 制度를
設置해놓는다면 아마 이點에 대해서는 어떠한
反對理論 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保障되는 理論을 展開할만한 그러한 高邁하고
도 훌륭한 才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
라고 나는 斷定해서 마지 않는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은 人道 문제에도 關係 된다 이

것입니다. 여러분 七十萬이나 六十萬이나 된다
고 하는 軍人들이 그거야 물론 愛國的 見
地에서 國民의 三代義務의 하나인 義務를 履
行하기 위해서 물론 服務하겠지요

그랬거나 저랬거나간에 그들은 自己 意思에 의
해서 그 地方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命令에 의해서 自己 故郷을 떠나간 사람들에
요 또 命令에 의해서는 인제고 그 地方을 떠
나갈수가 있는 流動性있는 位置에 있다 그
런말씀이예요 오늘 投票를 한 그들이 來日 아
침에 命令一下에 또 다른 地域으로 移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流動性있는 位置에 있다

는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더군다나 軍門에 生活을 하는 그들은 그 地方
의 一般市民들과 그렇게 接觸을 가질때야 가
질수가 없어 何等 그 地方에 興味를 느낄
必
要가 없어 그 地方의 將來의 發展이나 그 地
方을 위한 그러한 誠意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興味를 가질 必要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軍
務에 나갔다가 밤에 自己자리에 들어가면 故
郷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예요 選舉期가 되면 우
리 故郷은 누구 누구가 立候補한다... 물론
國會議員이라고 하는것은 自己 地方發展만을 위
한 地方的 代表만은 아니고 全國的 代表이
기때문에 그것이야 自己 地方만을 위한다는 이
理論이 全面的으로 다 通한다고야 할수 없겠
지만 어쨌든 우리 選舉區는 地域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小選舉區로 되어있는 우리 選
舉法에 의해서 自己 故郷에 出馬하는 사람에
게 自己의 選舉權을 行使하고싶은 그것은 아

마人之常情 일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 聖스러운 主權을 아무
런 興味도없는 그야말로 그저 집어던지는것이
나 다름이 없는 이런 心境에서 票를 던지게
되는 그러한 傾向이 있을수있다고 하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거
만 人道問題的인것이예요 그때들 軍人들의 그
心情을 생각할때 이런 關係까지라도 우리가 考
慮할수가 있는것이 아닌가 或者는 말하기를 自
己 故郷에 出馬한 사람이 自己있는 동안에 이
름도 모르는 사람 어떤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될때 차라리 그 地方에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
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人格
이라든지 力量이라든지들 들을수 있지만 모르
는것이 아니냐 宣傳을 通할 機會가 없기때문
에 自己의 票를 던지는데 있어서 어떤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덜 좋다고하는 이 判斷을
가지는데 있어서 어두울것이 아니냐 이런 말
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구대여 여기애
서 또다시 說明할 必要도없이 여러분이 常識
으로 能히 判斷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自己
의 故郷에 누가 出馬하고 누가 出馬하고 하
는 程度 같은것 누가 出馬 했다는것만 알면
거개가 알것이요 앞으로 自己내들에게 到達될
그러한 立候補者의 略歷紹介라든지 政見이라든
지 하는 印刷物이 오면 그것은 아마 그야말
로 眞摯한 精神에서 自己의 한票를 써 보내
는데 있어서 아마 自己 精誠를 다 할것입니다
그다음에 萬一... 이것이 이렇게문에 이사

람은 첫째 現地에 있는 軍人들에게는 市邑面長
等の 選舉조차도 이것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
것이에요 그사람들이 인제 移動하는지 모르는
그사람들에게 가령 여기에서 鐵原이면 鐵原楊
口면 楊口 해 봅시다 그 地方에 가령 邑長
이나 面長을 選舉한다고 假定을 해 보세요 住
民은 不過한 萬五千이나 萬名 밖에 안되는
데 軍隊는 한 三萬이나 四萬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地方에 邑長이나 市長이나 面長도
來日 떠날수도 있는 그 軍人들 票에 左右된
다 그것이에요 거기에 原住民의 意思라는것은
全然 無視 되어 버리고 他郷에 와 가지고 있
어서 언제든지 그 地方을 떠날수있는 그 數
字가 많은 軍人들 票로서 그런것이 다 左右
되는 問題 이런 不合理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첫째 소위 投票의 原理에 立脚해
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애
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것이
고 또 아까... 지금 當局者를 불러다가 먼
저 證言을 듣자 豫算關係도 있고 또는 事實
上 事務的인 關係도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도
朱耀翰議員으로부터 무슨 三十日... 이 무엇
인가... 同時 選舉를 하게되면 이렇게 걸린
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것이 아마 이 選舉
法 不在者 問題와도 關係이 間接적으로 있는
問題라고 생각하는데 이사람 생각은 어찌하여
기애 마친 「아이젠하워」大統領이 오셨을때 李
濤內務部長官이 나온 機會에 私談은 私談이니
다마는 暫間 얘기할 機會가 있어서 물어보았
어요

같은 問題 이런 問題에 의해서 左右된
다 이것은 國會議員이라고 하는것은 自己 地方發展만을 위
한 地方的 代表만은 아니고 全國的 代表이
기때문에 그것이야 自己 地方만을 위한다는 이
理論이 全面的으로 다 通한다고야 할수 없겠
지만 어쨌든 우리 選舉區는 地域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小選舉區로 되어있는 우리 選
舉法에 의해서 自己 故郷에 出馬하는 사람에
게 自己의 選舉權을 行使하고싶은 그것은 아
마人之常情 일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 聖스러운 主權을 아무
런 興味도없는 그야말로 그저 집어던지는것이
나 다름이 없는 이런 心境에서 票를 던지게
되는 그러한 傾向이 있을수있다고 하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거
만 人道問題的인것이예요 그때들 軍人들의 그
心情을 생각할때 이런 關係까지라도 우리가 考
慮할수가 있는것이 아닌가 或者는 말하기를 自
己 故郷에 出馬한 사람이 自己있는 동안에 이
름도 모르는 사람 어떤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될때 차라리 그 地方에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
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人格
이라든지 力量이라든지들 들을수 있지만 모르
는것이 아니냐 宣傳을 通할 機會가 없기때문
에 自己의 票를 던지는데 있어서 어떤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덜 좋다고하는 이 判斷을
가지는데 있어서 어두울것이 아니냐 이런 말
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구대여 여기애
서 또다시 說明할 必要도없이 여러분이 常識
으로 能히 判斷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自己
의 故郷에 누가 出馬하고 누가 出馬하고 하
는 程度 같은것 누가 出馬 했다는것만 알면
거개가 알것이요 앞으로 自己내들에게 到達될
그러한 立候補者의 略歷紹介라든지 政見이라든
지 하는 印刷物이 오면 그것은 아마 그야말
로 眞摯한 精神에서 自己의 한票를 써 보내
는데 있어서 아마 自己 精誠를 다 할것입니다
그다음에 萬一... 이것이 이렇게문에 이사

같은 問題 이런 問題에 의해서 左右된
다 이것은 國會議員이라고 하는것은 自己 地方發展만을 위
한 地方的 代表만은 아니고 全國的 代表이
기때문에 그것이야 自己 地方만을 위한다는 이
理論이 全面的으로 다 通한다고야 할수 없겠
지만 어쨌든 우리 選舉區는 地域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小選舉區로 되어있는 우리 選
舉法에 의해서 自己 故郷에 出馬하는 사람에
게 自己의 選舉權을 行使하고싶은 그것은 아
마人之常情 일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 聖스러운 主權을 아무
런 興味도없는 그야말로 그저 집어던지는것이
나 다름이 없는 이런 心境에서 票를 던지게
되는 그러한 傾向이 있을수있다고 하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거
만 人道問題的인것이예요 그때들 軍人들의 그
心情을 생각할때 이런 關係까지라도 우리가 考
慮할수가 있는것이 아닌가 或者는 말하기를 自
己 故郷에 出馬한 사람이 自己있는 동안에 이
름도 모르는 사람 어떤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될때 차라리 그 地方에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
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人格
이라든지 力量이라든지들 들을수 있지만 모르
는것이 아니냐 宣傳을 通할 機會가 없기때문
에 自己의 票를 던지는데 있어서 어떤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덜 좋다고하는 이 判斷을
가지는데 있어서 어두울것이 아니냐 이런 말
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구대여 여기애
서 또다시 說明할 必要도없이 여러분이 常識
으로 能히 判斷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自己
의 故郷에 누가 出馬하고 누가 出馬하고 하
는 程度 같은것 누가 出馬 했다는것만 알면
거개가 알것이요 앞으로 自己내들에게 到達될
그러한 立候補者의 略歷紹介라든지 政見이라든
지 하는 印刷物이 오면 그것은 아마 그야말
로 眞摯한 精神에서 自己의 한票를 써 보내
는데 있어서 아마 自己 精誠를 다 할것입니다
그다음에 萬一... 이것이 이렇게문에 이사

「그것이야 勿論 事務적으로 分量이 많이지는것은 事實이지만 이렇게 決定된 以上에는 우리가 좀 더 과를 하고 해서 이것 안할 수가 있읍니까? 하면되지요」 分明히 이 말씀을 들었읍니다

아마 勿論 內務部長官 이 자리애 나오면 하루 밤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條件이 發生되어서 如何한 對答이 하게 될는지 나는 모름니다 아마 나는 그러한 對答이 나올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그렇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議員도 같이 들은바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國防當局者는... 國防當局者 卽 國防部長官은 지금 제가 序頭에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이 不在者投票制度는 반드시 採擇 해주셔야 되겠소 하는것을 그야말로 강력히 自己信念에 의해서 證言했다는 事實을 여러분께 서는 想起하여야 할것입니다

(場內騷亂) 朴忠模議員! 나이값을 해요!

(場內笑聲)

그러므로 있다가 當局者가 나와서 國會의 證言이라는것은 重要な 意義를 갖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證言이 있을것으로 우리는 믿어두고 그다음에 간단히 하나 이 不在者投票制度에 대해서 말씀을 敷衍해가지고 여러분의 參考로 삼으시도록 할까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三年前 協商選舉 法當時에 延時間... 夜間 三十時間에 가깝도록 與野에 時間이 있었던것입니다 卽 卞字로 말하면 적어도 五 六日이나 걸렸을것이요 여

러가지 어려운 協商가운데에 本議員은 이점을 들어가지고 가장 명렬히 싸웠던것입니다 그때 自由黨議員 여러분의 理論에 있어서는 한분도 反對하는 바가 없었어오 다만 自由黨의 黨略 黨策에 의해서 自由黨代表 다섯분은 이것을 反對했던것입니다 當時에 主唱한 本議員의 理論은 亦是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은 똑같은 理論이었읍니다 李承晚大統領을 世界的 反共指導者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崇拜하고 推戴를 하고 總裁로 모시고 나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目標은 共產國家다 共產國家와 統率리를 마주대고 七十萬 우리 大軍의 休戰線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애다가 選舉運動을 디리 넘어 가지고 이 軍人들의 精神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것이 果然 反共指導者를 大統領으로 모시고있고 總裁로 모시고있는 여러분의立場에서 이것을 反對할 立場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忠告를 했던것입니다

그분들 이점에 대해서는 理論으로 反對하지를 못했어오 다만 自由黨의 黨策 黨略... 어찌든 이 七十萬의 軍人의 票을 무슨 方法을 通해서든지 自己내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應用해 보자 하는 이底意는 그분들이 露骨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원히 원히 들여다보

였던것입니다 우리 民主黨에서도 代表로 나간 이사람의 이 理論을 積極 支持했던것이요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世態가 바꾸어졌으니 本

人의 信念을 바꾸어야 된다는 何등의 理由를 發見하지 못했고 또 오늘날 우리 黨으로서도 오늘날 四·二六 革命이 이루어져 가지고 世態가 이쯤 되었으니 不在者投票를 요원한 안 해도 좋지않느냐 하는 卽 不在者投票를 採擇하지않는것이 좋지않느냐 軍人에게 選舉運動에 들어가도록 하고 軍人들이 그地方사람에게 投票를 하도록 하고 이태도 좋지 않느냐 이런 態度로 나오기 위해서 必要한 何등의 條件이 나는 달라진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과같이 여전히 우리는 어디까지나 政治的 信念에 依해가지고 이것을 貫徹시키지 않을수가 없는것이요 또 或者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一線地區에 있는... 아까 李泳熙議員이 말씀하신것으로 記憶을 하고 있는데 一線地區에 있는분들은 不在者投票를 贊成하는지는 모르나 그餘他 二百三十三區中 大部分 地方의 出身議員들은 이것을 反對합니다 나 이것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것으로 記憶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오 짐작컨대 二百三十三區인 우리 選舉區로 보고 가령 六十萬 우리 軍隊라고한다 한것같은면 平均해서 한 區域에 約 한 二千名가까운 靑年들이 徵集을 당해서 지금 軍務에 服務하고있다 이런 數字가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軍隊가 그地方의 出身에게 投票를 하지않고 自己地方에 投

票를 하게된다면 李泳熙議員이 말씀한대로 하
 며는 그 軍人들은 李泳熙議員에게는 投票해주
 지 아니하리라 하는것을 말씀하는것인가 卽
 다시말씀하며는 青年과 軍人들의 支持를 못받
 는다 하는것을 前提로하고 말씀하시는것인가
 만일 그렇다며는 으것하게 몇몇하게 나는 良
 心이 있고 너운피가 끓는 青年과 軍人과 學
 徒의 支持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自
 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다 贊
 成할것이요 그렇다면 그러한 理論은 지금
 이 문제를 反對하는데 適用되어야 될... 나
 는 理論으로선 取扱하기가 어렵다 이것이요
 그런 點에서도 말씀하자며는 여러분이 만일
 지금 青年學徒와 軍人들의 支持를 받을自信이
 있으신 여러분들이라고 할것같은면 이 不在者
 投票에 反對하실 理는 나는 조금도 없는것이
 아니나 하는 말씀을 겹쳐서 드리면서 있다가
 當局者가 와가지고 證言을 하도록 했고 우리
 는 이 證言을 들은뒤에 또 討論이 繼續이
 될것입니다마는 本議員은 참다운 意味에 있어
 서 우리가 이 國防이 만일 조금이라도 不
 安을 느끼게 된다면 모든것이 다 虛事다 하
 는 이 見地에서 첫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
 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見地에
 서 이 六十萬 軍隊의 票를 그렇게 거의 過
 去와 같이 헛되이 던지지 아니할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면 自己가 投票하고싶은 自己의
 故郷出身에게 投票할 機會를 自己가 制度上
 保障해야겠다고 하는 이 信念을 나는 어떻게
 증명수가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民主黨에

서도 지난번 議員總會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
 를 論議하기로 했다가 贊成 反對 兩論이 서
 로 展開된 나머지 結局 어떠한 方向으로서
 도 可決을 짓지 못하고 이대로 進行되어 가
 는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까지나 이 不在者 投票라고 하는것을 愛國的
 見地에서 다시 말씀하면 各自 無所屬이나 民
 主黨이나 或은 自由黨이나 或은 同志會나간에
 莫論하고 自己 各自의 黨利黨略 이런것을 다
 超越하고 우리 軍人은 참다운 軍人으로 軍人
 精神을 그대로 이 나라를 지킬수있도록 이
 選舉期를 通해가지고 軍人의 精神을 腐敗시키
 고 그 精神을 혼들어 놓고 이 精神을 잡치
 게 해가지고... 우리 國防에 不安이 없도록하
 는 그런 見地에서 여러분의 立法者로서의 態
 度를 決定해주실것을 간절히 付託하면서 내리
 가겠습니다
 (좋은말씀이요)하는이 있음)
 ○副議長(李載澤) 趙一載議員 말씀하세요 趙一
 載議員을 紹介합니다
 ○趙一載議員 이제 柳珍山議員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集團的인 軍人이 選舉運動을 했을때
 에 軍의 腐敗가甚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
 니다 그렇다고하면 萬一 軍人이 自己地方에
 投票權을 가진 경우 이軍人들은 大部分이 後
 方에있는 軍人들이입니다 이렇게하면 自己出身
 民議員 或은 立候補者에게 直接 投票權 行使
 할것을 前提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弊端을 일
 으키겠다는 事實은 저희들 二年동안의 國會議
 員 行營를해서 經驗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軍人들은 大部分이 前方에 있는것을 꺼
 려하고 後方에들 오려고 希望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이軍人들이 後方에 自己 投票權을
 行使할수 있을경우 이사람들은 그야말로 이投
 票權 行使를 自己選舉區와 直接 關聯시켜서
 더 큰 腐敗와 事故가 일어날 原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제 柳珍山議員이
 말씀한 그理論에는 이사람은 意見을 달리한다
 는 말씀을드리고 理論으로는 多少 肯定하는
 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實地문제
 를 다루어볼때에 대단히 어려운것이 있습니다
 特히나 요번 이時期에 있어서는 時間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도저히 不可能하다고 이사람은
 斷定해 마지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不在者의 選舉가 이루어진다고 假
 定할때에 現在있는 이軍人들은 全部 다 自己
 本籍地에 有權者의 登錄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람이 推測하기로는 不遇
 三十日 乃至 四十日 채 못남은 艱難에있다고
 생각올하는데 지금부터 一線地區 三八線 或은
 그以北의 收復地區에서 時間的으로 어떻게 自
 己本籍地에 그당은 兵丁들이 全部가 다 選舉
 人名簿에 登錄을 할수있으며 이것은 이번 選
 舉法에보면 全國에있는 軍人 各自가 自己選舉
 區에다가 書信으로나 選舉法節次에 依據해서
 登錄을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點
 으로 보아서도 時間的으로 도저히 하기 어려
 울뿐만 아니라 첫째 우리나라 豫算面으로 보
 아서도 지금의 制限하기 困難한 財政形便에 놓여
 있습니다 日前에 어떤사람은 말하기를 軍當局에서
 師團이면 師團單位에서 適切히 할수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이야기야말로

語道斷입니다. 軍에서 무슨 經費를 가지고 무슨 豫算의 項目을 流用해 가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不可能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萬若에 一線地區에 있는 軍人들이 自己本籍地 選舉區에 手續을 하게 되면 그 該當 選舉區 다시 말하면 全國 不過 一線地區에 五·六個 選舉區를 除外한 三百數十個 全體的으로 一大混亂을 가져오는 것은 明若觀火일 것입니다. 이런點을 비추어 보아서도 事實上 이 現實에 困難하다는 이야기는 否定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實地 문제가 全國의 二百三十三個의 區에서 가령 한 投票區에서 세사람 정도가 立候補한다고 하더라도 全國에 이것을 統合하면 約七百名의 立候補者가 나오는 것이 됩니다. 全國에 七百名이라는 立候補者가 나올 變遷가 變遷가 二師團第二聯隊第一大隊 이런 變遷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大隊本部內에 적어도 聯隊本部 聯隊本部에 있는 二部隊內에다가 이 七百名의 「포스다」나 略歷을 일일이 紹介를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왜냐 그 二師團第一聯隊라고 하면 그 안에는 全國坊坊曲曲에서 가 있는 우리 軍人인 만큼 그사람들에게 公正하게 立候補者의 紹介를 하기爲해서는 이제 제가 豫測해서 말씀드린 이 七百名의 略歷과 其他 宣傳文을 全部 羅列해서 紹介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事實上 이問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困難한 問題입니다.

또 이것을 事務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령 楊口에 있는 五聯隊本部에 이제 말씀드린 七百個 「포스다」나 略歷을 우리가 設置해 줄 變

遷 이것은 각已 全國에 있는 選舉區에서 印刷을 해 가지고 이것을 郵便으로나 飛行機로 가져가더라도 그 選舉區에... 그 第二聯隊같은 第一聯隊에 보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부터 不過 三十日밖에 없는 이時期에 어떻게 해서 全國二百三十三個區域에 「포스다」나 其他 略歷文을 보낼 수 있겠느냐는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이 三十日以內에 이제 말씀드린 그 사람의 政策紹介와 略歷紹介를 할 수 있는 變遷가 생기더라도 이사람들은... 既成政治家는 或은 新聞紙上이나 其他를 通해서 알 수 있을 變遷 새로 나오는 新進人物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짧은 時日內에 도저히 理解를 해서 判斷할... 時期的으로 餘裕를 못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既存政治家 或은 有名한 政治家에게는 有利한 立場을 만들어주는 反面에 新進政治家에게는 이 進出에 妨害를 한다 하는 結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形便의 變遷를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不可能한 變遷입니다. 지금까지 軍에서는 統帥權 指揮權을 濫用해 가지고 어떤 한사람의 特定한 사람에게 그 指揮官이 無條件으로 投票해야 된다는 強壓的 指揮權을 했음으로 해서 不正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事實이었음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統帥權이나 指揮權을 濫用해서 強壓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方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자리에서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은 事前 密對教育을 했고 또 三人組 五人組를 軍內에서도 亦是 訓練을 시켜서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投票所內에 參觀人의 軍人階級이 높은 사람이 들어 가서 士兵들 投票하는 것을 監視 監督 威嚇했고 公開投票가 可能했고... 했읍니다. 그리고 投票所를 軍營內에다가 設置를 했읍니다. 이런 故로 해서 지금까지 軍의 不正投票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때 이번 選舉法에 選舉法草案에 보면 事前的 密對教育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三人組 其他 參觀人... 參觀人만 하더라도 軍人이 參觀할 수 없다는 明文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營內에 投票所를 設置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요즘 特別히 不正投票를 操縱하고 不正投票에 壓力을 加한 軍의 自己비들 上官에게 「메모」를 하고 있는 이 차관에 어떻게 해서 三人組 密對教育...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러한 過程을 여러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故로 해서 不正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나 이번 이 選舉法과 지금 우리 韓國 政治情勢에 있어서는 이러한 方法은 이제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時期에 이르러졌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軍人들은 自己의 權利를 行使하기爲해서 投票當日 營外 一般投票所에 가서 아무런 制限을 안 받는다. 自由스러운 氣分에서 혼자 들어가서 投票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反對로 아까 本籍地에 投票를 하게 된다고 할 경우 이것은 郵便을

通해서 하는 만큼 事前에 投票用紙를 그指揮官을 通해서 적어도 上士나 中士손을 거쳐서 各自 有權者인 士兵들에게 거쳐갈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用紙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記票를 할것입니다. 記票를 하고난뒤에는 어떤 節次를 밟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軍內部인만큼 이것을 封을 하는지 안하는지間에 自己上司인 上官을 通해서 投票할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까 이指揮官이 過去와같이 不正을 하고싶은 그런 計劃이 있다고 하면 投票用紙를 나누어줄때에 暗示도 줄수 있을것이고 強壓도 할수 있을것이고 또 投票用紙를 나누어줄때에 미리 記票를 해가지고 너

이름 이封套에다가 記票한 이대로 넣어서 이 자리에서 投票하라 이렇게도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런點을 우리가 보더라도 本籍地에 投票를 하게되면 投票하는 節次와 여러가지에 있어서 大混亂을 일으킬뿐 아니라 不正을 할수 있는 여러가지 課程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點을 생각할때에 本職員은 不在者投票에 反對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듣기로는 지금 長官이 나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日前에 우리 國會委員長에나와서 證言하기를 特히나 今年度에 있어서 財政面으로보나 現費에 비추어서 不在者投票는 도저히 不可能하다 하는 얘기를 한것이 애기를 듣고있습니다. 이외에 弊端이 여러가지 있는것을 指摘을 하고싶습니다. 於

先 그 많은 立候補者가 一線地域이나 各軍隊

駐屯地에 일일이 自己내 紹介를 할수있는 機會를 못가진다는것과 其他 이제 말씀드린 여러한 理由로써 不在者投票에 이사람은 反對하는것입니다.

○副議長(李載濂) 지금 討論途中인데 內務部長官 出席을 안했습니까? 있습니다. 國防部長官은 아직 出席을 안했습니까? 계속해서 討論하는것이 답변을 듣기라고요. 內務部長官意見을 먼저들어

요? (「같이 들어요」하는이 있음) 같이듣는것이 옳을것입니다. 같이 出席을 要求했으니까...尹潑洋議員 討論하세요尹潑洋議員 이 不在者投票에 있어서 여러가지 論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冷靜히 생각한 가운데에 꼭 이것을 두어야되겠다는...不在者投票을 이번에 實施 해야되겠다는 意味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外國의 例를 보더라도 지금 이 不在者投票라는것이 우리나라에서 세삼스럽게 議論되는것이아닙니다.

各國에서도 勿論 여러가지 論議 討論끝에 結局은 不在者投票을 實行하는게가 여러나라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或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實施하는데 있어서 勿論 여러운 點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點이 많다고해서 고만두자는 理論은

나는 맞지않는다고 이렇게 보는것이예요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討論하고 論議해서 옳은것이라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實行해야 할것입니다. 나는 듣기에 제가 國防委員...直接은 아녘니다. 다마는 여러 國防委員의 말씀을 들으면 이 國防委員會에 나와서...지금 그 長官이 여기에 안계십니다. 國防部長官이 여러번 오히

러 이것은 꼭 우리나라에서 實施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말을 여러委員께 내 들었습니다. 그러한 意味로서 나는 內務部長官의 意圖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비록 우리가 짧은 時日에 實行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努力도 안하고 그냥 덮어놓고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理論은 展開해서 안된다고 이렇게 보

는것입니다. 여기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제가 最近에 朝鮮日報社說에 난것을 그 一部分만 간단히 여기에 對한 말씀을 다시한번 紹介하겠습니다. (「고만두어요」하는이 있음)

社說全體가 아니라 간단한 句節이예요 (場內雖然) 조용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말씀할때 저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세요 不在者投票에 關係서는 軍을 비롯하여 各界各層의 輿論이 大體로 贊成하고있는데 惟獨 民主黨만이 그것을 싫어하고 投票에 關係하면 從前대로 하자고 例外規定을 設定하겠다는것

입니다

이다

不在者投票制度가 理論上 善다면 卽刻 實施해
야 할 것이지 初回에는 保留한다 는 것이 結局 무
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或은 選舉人 名簿作成上
善은 期間內에 여러가지 混亂을 招來하기 때문
에 不可能할지도 모른다고 善意의 解釋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行政府의 所管이지 立法府로
서 行政府의 形便을 지나치게 考慮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이런 實情한 實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行政府의 努力만 있다면 나는 이번엔 꼭
實施되리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애초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 選舉區가 이 京畿道抱川이읍시다 抱川이라
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一線에... 또
軍이 상당히 많아요

요前番에 요前番 選舉時에 軍人數가 四萬 一
般이 五萬 그래서 九萬名이었고 그前에... 요
지난번 그前에는 그反對로 軍人이 五萬 一般
이 四萬 해서 九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絕對多數를 軍人이 차지하고 있는 이
形便에 여러분은 大部分이 여기 一線地區
에서 오신분이 나는 몇분 되시는지 모르지만 제
가 느낀 實際 經驗에 비한다면 그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人格을 尊
重하는 意味에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討論할
뿐만 아니라 이번 꼭 이 不在者投票를 實施
해야만 될 것을 느끼고 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첫째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
보다도 우리가 國防上 機密이라면 그機密을 대

단히 우리가 重要視 아니 할 수 없는데 저희 選
舉區에서 나온 票를 본다면 各投票區에 나오
기를 一般이 얼마 軍人이 얼마 이렇게 各投
票區別로 軍人과 一般이 다 나와 있다 말씀이
애초

그것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소 우리 韓國의
南韓에 있는 各軍隊의 各軍別로 各選舉區別로
어디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더라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불적에
마음에 걸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國防
上 機密이 이런데서 모두 흘러간다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
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 사람의 한 사람입니
다

그리고 제 經驗에 또 비추어 본다면 軍人이
이렇게 集團的 選舉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칫
하면 어떠한 그 特定人에게 票가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票가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軍隊生活에 勿論 知
覺있고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은 그럴리가 없
겠습니까마는 大部分의 兵士들은 大體 그때의
空氣如何에 따라서 마음이 支配되는 것이 애초
혹은 여러분 아까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上
官級이 어떤다는... 勿論 上官의 直接 活動에
指導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聯團에 있어서 間接적으로
얼마든지 「힌트」를 줄 수도 있는 것이 애초 또
나의 經驗에 비추어 본다면 그 여러 兵士들

이 나와... 이 抱川은 抱川에 누가 누구인
것을 잘 모릅니다 솔직한 애기가 몇個月에
어떻게 알겠어요 또 더구나 一般과 接觸이
적은 軍人으로서 어떻게 이 出馬者의 經歷이
라든지 德望이라든지 知識이라 는 것을 다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自己 故郷으로 한다고 하면 제
어도 自己故郷에 몇해 동안 사는 동안에 그 각
자의 모른것을 知識 德望 또는 經驗 여러가
지로 보아서 自己의 判斷을 잘 할 수가 있다
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애초
그러면 아까 말씀과같이 自然히 方法에 있어
서...

(場內雖然)

말씀들어주세요 잘 잘못은 나중에 判斷하시
고...
그렇기 때문에 이 軍隊에서 우리가 選舉를 한
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것으로 아
까 말씀한 바와같이 自己故郷으로 投票를 할 것
같은 다 잘 알기 때문에 또 후 그 方法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方法은 內務當局이면
內務當局에서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方法에 의해서 自己故郷으로
投票하여 보내면 될 것이 애초 勿論 數萬名 數千
명이 다 어떻게 한꺼번에 하느냐 하지만 그
것은 다 自己故郷으로 할 것 같으면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분 말씀은 그 名簿作成에 대단
히 混亂을 이룬 것이다 그랬는데 벌써 名簿作成

아라는 것은 선제든지 準備가 되어있는 것임이다
前에 보면 不遇 며칠안에 다 되고 있어요 그
것은 우리 立法府에서 心慮할 必要는 조금도
없다고 보는 것임이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이 軍人은 대단히 단
순한 位置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풍
지못한 方向으로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戒 말을 들으면 이런 애
기를 합니다 이 士兵더러 애기할 때 당신은
이번에 누구를 支持하겠소 이런 애기 나올 때
에 그 士兵들 對答이 나는 그저 슬이나 한
잔 주면 그냥 나는 아무나 좋아 아무나 제
했어 이런 애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들고 있음
니다 이것은 事實이요 누가 누군지 모를 것
이니까 自己는... 엄밀 생각하기에 그럴 리도 없

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저 내게 잘 해주는 사
람 술잔이나 주는 사람 담배라도 하나 주는
사람한테 投票해야 되겠다는 것이 心情일 것임이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軍
人이 즉 集團해서 列을 세워서 投票를 할 때
에 누가 누군지 모를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選舉人이라든지 또는 參觀人이
라든지 事實 누군지 區別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한사람이 四·五人 或은 六·七
人이 代身해서 代身投票를 한일이 있다고 합
니다 代理로 그렇게 나가서 投票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일할 비슷하고 같은 服裝
에 같은 키에 비스듬한 키에 있으니까 그것

을 區別 못해서 五·六人乃至 七·八人이 代理
를 해서 投票했다는 소리도 듣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래서 이 起草委員會에서도 참 艱難討
論하고 여러가지 참 意見을 綜合해서 좋은 意
見이 나왔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添付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까 朝鮮日報
의 辭說 말과같이 하필 한다면는 이 參議院부터
할 것이 없다 한다면 이와 實施할 때에는 民議
院부터 하지 못할 理由가 어디 있는 것인가 이
것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結論
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참 많은 數交의 이
兵士의 士兵들의 人格을 尊重하는 意味에서 그
이들이 참 마음먹은대로 自己가 願하는 대로
自由롭게 自己 故郷에 있는 候補者에 대해서 投
票를 할수 있는 그 機會를 주는 것이 가장 좋
다고 생각해서 이 不在者投票에 贊成을 하
는 同時에 이것이 이다음으로 參議院까지 미
를 것이 아니라 한다면 좋은 일이라면 빨리 이
民議院부터 實施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
고 세 말씀을 간단히 줄입니다

○副議長(李載憲) 다음에는 趙漢相議員 말씀하
세요 趙漢相議員 안 제세요?
徐範錫議員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時間을 延長해서 이 討論을 繼
續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場內騷然)

○徐範錫議員 어떻게 贊成인데...
그럼 反對 나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오다음에
하겠읍니다

○副議長(李載憲) 失禮했읍니다
徐範錫議員 아님니다 金載坤議員입니다 司會者

가 失手했읍니다 金載坤議員 안 제세요? 그
러면 李錫錫議員 나오세요 金載坤議員 金載坤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載坤議員 이 不在投票 문제에 대해서는 結
論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反對하는 사람이울
시다

왜 反對하느냐 하면 이 不在投票制의 論議自
體가 확실히 四·一九精神에 違背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四·一九革命을 契機로 해가지고 第二
共和國이 樹立되려고 하는 그 聖스러운 刹那
에 와서 各派 代表끼리 모여가지고 選舉法改
正案을 草案한 것이읍니다

그때에 거의가 그 當時의 心情으로서는 이
四·一九革命精神을 받드는 意味에서 서로가 自
己 마음에 多少 안 맞는點이 있다고 하더라
도 互讓之精神을 發揮해가지고 이 案이 된 것
이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時間이 흐르고 날이 감에
따라서 못된 버르장머리가 되 살아나와가지고
못된 버릇의 延長을 한번 해보자고 이러한 문
제가 論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四·一九精
神에 비추어서 이 革命精神에 비추어서 가장 아
름답지 못하고 聖스럽지 못한 底意가 內包되어 있
다고 생각 할 때에 이 문제를 論議하는 이 사람으
로 하여금 가슴 아픔을 禁하지 못하는 바이읍니다

문제는 이 不在者投票를 하자고 하는구나 또 하지
말자고 하는구나 여태까지의 選舉事務가 行政的
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政治的으로 選舉事務
가 이루어 졌다 비단 이 選舉문만 아니라 다른

가 이루어 졌다 비단 이 選舉문만 아니라 다른

行政部門에 있어서도 政治的으로 모든 行政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일 意味하는나 하면 문제는 一人獨裁 一黨獨裁를 갖다가 連續시키 는 方法의 하나로써 行政을 갖다가 行政的인 行 政을 해나온것이 아니고 政治的인 行政을 해나온 것 때문에 오늘날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것이올 리다

그러면 選舉事務 自體도 選舉事務를 갖다가 行政的으로 選舉事務를 「하지않고 政治的으로 選舉事務를 履行해왔기때문에 이러한 不正投票을 防止하는 意味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들은 野黨의 位置에서 아가 各界 여러職員이 曹在 千職員이 거기에 協商選舉를 當時에 이야기들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當時에는 行政的 選舉事務를 執行하지않고 政治的 選舉事務를 執行하기때 문에 조금이라도 이 不正을 갖다가 막아보자하 는 心情에서 이러한 不在投票 이야기가 나왔 던것이올시다 그當時 不在投票 이러한 方法이 라도 써가지고 이 政治的 選舉事務를 갖다가 막 아보자 말하자며는 不正投票을 막아보자는 意 味에서 그런 이야기 가 論議되었다고 本議員은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不正投票을 함으로써 不正이 잘막아지 는나? 不在投票을 안함으로써 이 不正投票을 막을수가 있는나? 이 輕重을 바라볼것같은면 그답은 自然히 明確해지리라고 생각하는바이올 리다 아가 柳珍山議員께서도 나오셔서 말씀하 시기를 또 尹琰澤議員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시 기를 一般住民보다도 軍隊數가 많을때에는 그 어떤 指揮官이나 어떤 特定人의 權限과난에依

해서 住民의 意思表示를 갖다가 正反對하는 어 떤 特定人의 意思대로 投票이 이루어지기 쉽 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 이 不正投票을 前提로 하기때문에 이런理論이 卽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國民 個個人이 自己意思를 갖다가 充分히 發揮할수있는 그러한 境遇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같은 當時 江源道에있는 軍人이 비록 本籍은 全羅道에 가지고있고 慶尙道에 가지고있 다고 하더라도 亦是 大韓民國의 聖스러운 國 民의 한사람이올시다

그國民이 自己의 地方에 居住하고있는 그地域 에서 政見發表會도 듣고 人物도 보고 그사 람의 經歷도알고 이런 方向으로 움직여가지고 投票하는것이 不正投票이 될수가 있는나? 또 한 故郷에서 立候補를 했던지 누가 立候補를 했던지 어떠한 政見發表會를 했던지 어떤 人 物인지 어떠한 過去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모 르는 사람에게 千里他郷에서 用紙하나 띄어가 지고서 投票하는것이 올바른 投票이 될수가 있 으며 올바른 選良을 갖다가 選出할수있다고 생 각하는가? 이점에 對해서는 本議員으로서는 비록 故郷은 濟州道에가지고 있던지 全羅道에 가지고 있던지 그리고 慶尙道에 가지고있다는 지 江原道에가지고 軍人生活을 하는 軍人도 亦是 聖스러운 大韓民國의 國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自己가 있는 그地方에서 出馬해가지고 그政見을 듣고 人物을 알고 人物의 過去 를 알고 그人物의 現在를 알고 그人物의 將來를 갖다가 豫測할수있는 사람에게 判斷을해

가지고 投票하는것이 가장 正確한 投票이 되고 正確한 投票이 이루어짐으로써 올바른 選良을 選出할수 있지않나 이러한 結論이 내리진다고 생각하는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한가지 생각할때에 濟州道 出身의 軍人이 江原道에와서 있을때에 저어도 우리 選舉法을 보아서는 아침 七時부터서 午 後四時까지 投票時間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하 루에 江原道에서 郵送을해가지고 濟州道까지 는 到着을 못할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불이나 사훈이나 앞에 날짜를 두어가지고 보내야될때에 根本的으로 選舉法精 神에 違背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점에 있어 서도 反對를하고 아가 趙一載議員이 暫間 言 及을 했읍니다마는 投票用紙를 選舉區에서 郵 送되어왔을때에 亦是 그 部隊의 어떤 重要幹 部를 통해서 投票用紙가 配付가 될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重要幹部를 갖다가 어떤 特定人이 買收 或은 못된 方法으로 했을때에 그사람의 暗示如何에 따라서는 이사람이 投票를 갖다가 그사람에게 어떠한 買收된 特定人에게 投票하 기 쉬운 그러한 結果를 가져올수있지않나 또 한가지는 아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不正投票을 갖다가 前提로 한다고하면 不正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前提를 한다고 할것같은면 그 地方의 郵遞局長이라든지 郵便局의 職員

하나만 買收한다 하더라도 하루 저녁사이애 어떠한 不正이라도 이루어질수있는 길이 마련 된다

이렇기 때문에 現地에서 投票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不正投票率이 대단히 濃度가 強하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不在投票을 反對하는 理由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本議員도 이런點에 對해서 眞 關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特히 不正選舉 選舉事犯에 對한 調査關係를 갖다가 檢察官局에 맡겨 보았더니 萬一 濟州道에 不正選舉가 있었다고 할 때에 濟州道警察로 하여금 江原道の 一線에

가야 되고 京畿道연방에 가야 되고 해서 그 選舉事犯을 調査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萬一 千里 길을 사이에 두고 不正選舉가 생겼다고 할 때에 그 警察官으로 하여금 그 選舉事犯을 갖다가 調査하는데 있어서 方途가 없다고 해도

이런點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런點을 갖다가 틀타가지고 不正選舉를 할 길이 또 마련되지 않는다 이런기 때문에 現地에서 하는 것보다 이 不在者投票라는 것은 오히려 이나라의 選良을 갖다가 聖스럽게 보는 그마당에 있어서 대단히 좋지 못한 方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되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하나 우리 國民의 意識程度와 우리 國民들의 誠意如何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金載坤이 金載坤이가 全羅南道에 籍을 가지고 江原道에 가가지고 申告를 하지 않으면 그사람의 投票權은 完全히 棄權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申告하는 率이 많겠느냐 現在에 있어서 營外에 投票所를 設置해 놓고 營外에 가서 投票을 하고 오라고 하면 率이 다 投票에 빠지는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故鄉에다가 申告를 해가지고 投票을 하게 될 것 같은 申告하는 이 率이 대단히 저울 것입니다 申告하는 率이 적다고 하는 意味는 投票하는 數가 적어진다 말하자면 棄權數가 많지 않느냐 이런 意味에 있어서라도 不在者投票은 오늘 現實에 있어서는 不適當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副議長(李載濤) 가만히 계세요 會議時間을 延長합니다

○金載坤議員(계수) 그리고 이제 柳珍山議員께서 暫間 言及한바 있습니다마는 環境의 變化가 별로 없는데도 不拘하고 그 當時에 民主黨一部에서는 不在者投票制를 갖다가 상당히 力說을 했는 때도 不拘하고 지금에 와서는 不在者投票을 갖다가 反對할 理由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實실히 環境의 變化 政治的變化는 크게 가져왔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든다고 할 것 같은데 本議員이 屬하는 우리 民主黨에서는 內閣責任制를 갖다가 極히 부르짖고 온 政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黨에서는 內閣責任制로 改憲을 하되 大統領은 直選制로 하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大統領直選制를 갖다가 直選制로 하지 않고 政局의 變動에 따라서 間選制로 하는데 우리 黨으로서 는 讓步를 한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거기에 우리가 不在者投票을 갖다가 力說할 二當時에 있어서는 自由黨에 屬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罪愾한 때에 기입니다마는 前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當時에 選舉事務가 行政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政治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政治的

不正選舉事務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막는 方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不在者投票을 갖다가 力說했습니다마는 오늘에 와서는 投票所를 갖다가 營外에다 두고 軍人自身이 自由스럽게 選舉演說을 듣고 그사람의 經歷을 자세히 알고 그사람을 정확히 把握을 해가지고 投票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 같은데 억지로 不在者投票을 갖다가 力說할 理由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가지 國防當局에서 不在者投票을 갖다가 根本부터서는 기이코 實施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나와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로서는 政治的底意가 那邊에 있다 하든 것을 갖다가 어느程度 把握을 하고 있습니까

一部的 사람들이 特히 이런 關係에 있어서의 不利한 位置에 있는 사람들이 私의으로나 혹은 內內的으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國家百年大計를 위해서 寒心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軍人들 自身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現在도 귀찮아 죽겠는데 아침에 나가서 해 저도 무라지 쫓을 겁니다 나무를 빈다가 앉을 받는다 하고 있는데 申告해가지고 投票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자리에서라도 하면 政見發表도 듣고 그사람의 經歷도 듣고 그사람의 經歷도 알고 그사람의 現在와 그사람의 將來를 갖다가 參酌해가지고 投票을 하려 나가는데 率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萬一 不在者投票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의가 棄權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本議員은 듣고 있습니다

111

이런 意味에 있어서 本議員으로서는 根本的으로 選舉에 不參하는 數를 計하고 不正投票를 計다가 막는 意味에 있어서 不在者投票 云云이 나왔다고 할 것 같은데 不在者投票을 하는 것이 不在者投票을 하지 않는 것이 不在者投票을 不在者投票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參加하는 數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意味에서 不在者投票制 自體를 根本的으로 本議員은 反對를 하고 내려갑니다

(緊急議事進行이요) 하는이 있음

○副議長(李載滄) 어기에 議事進行에 대해서 金善大議員이 發言申請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緊急議事進行이요」하는이 있음)

무엇에 대해서 議事進行을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李哲承議員께서 緊急議事進行을 하십니다 李哲承議員을 紹介합니다

(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件)

(下午一時)

○李哲承議員 우리가 憲法을 通過하고 이 第二共和國의 憲法을 料理할 수 있는 새로운 國民의 代表를 뽑기 위해서 마지막 關係되어 있는 몇가지 法案을 効率的으로 審議通過시켜 가지고 國民投票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政局을 安定해오자 하는 오로지 피차가 衷情일에서 議事進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去去益甚으로 우리가 四月革命精神을 받들기 위해서 努力했다는 것은 완전히 오늘 이 순간 事態로서 海水沫과 같이 깨지고 말은 것 같은 感情이 있어서 참 悲憤感憤하

기 장이 없읍니다

지금 議事堂밖에서는 二四波動以來에 또 그 동안에 李承晚政權에 獨裁腐敗政權에 最後까지 앞치므로 서서 無辜한 學生들을 銃질해서 쓰 아주인 그런 警察들이 一部 많이 反省을 하고 是正을 하고 또 警察官의 士氣를 도우고 모든 制度面에 있어서 整備을 해서 人事問題에 많은 管理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無限한 協助와 諒解를 애까지 하고 있었읍니다
오늘 이 뒤에서 國會뒤에서... 正門에서 相當한 數의 警察官들이 包圍를 하고 國會에 壓力을 넣어서 「데모」를 하는 것은 二四波動 때와 같은 再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읍니다
內務長官도 이 자리에 계셨고 許國務總理도 계시니만큼 總選舉라고 하는 것은 秩序가 確立되어 있고 安定된 政局에 있어서도 대단히 不安한 것이읍니다
總選舉를 할 때에는 平常時에 있어서도 相當한 對稱을 하지 않고는 總選舉를 無事하게 끝낼 수가 없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治安과 秩序를 維持하는 가장 先鋒的 役割을 하는 警察官이 「데모」를 하고 앞장서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狀態에서 우리가 選舉法을 論議해가지고 國民投票에 의한다는 것은 緣木求魚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만큼 議長은 즉각 國會를 停止를 하고 이 狀態에 대해서 어기에 대한 根本對策을 樹立하지 아니하고는 議事進行을 할 道理가 없다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議事進行으로 나온 것읍니다
議長은 곧 停會를 하고 政府當局者 國務總理와 內務長官을 이리로 오시라고 하고 어기에 대한

根本對策을 먼저 樹立한 뒤에 議事進行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議事進行으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李載滄)이 事件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會議에서 內務委員會에 廻付를 해서 거기에 處理를 하도록 이렇게 作定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事態가 대단히 豫測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서 現在 議長으로서는 仔細히 모르겠읍니다마는 議事堂밖에 相當한 警察官이 「데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院議로 作定할 문제입니다 議事進行을 말씀하시는 분이 意見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具體的으로 提議를 해주시기 前에는 議長으로서 마음대로 處理하가가 어렵습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具體的으로 李哲承議員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李哲承議員이 具體的으로 말씀하십시오 議長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셔야 議長은 그렇게 處理하지 못합니다

○李哲承議員 議長께 말씀드릴 것은 即刻 會議를 停止하고 許國務總理와 內務長官을 오시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國會 議長團에서는 이 문제를 그동안 停會동안에 이 收拾에 대한 協議를 한 뒤에 總理와 長官을 오시게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對策을 本會議에서 論議하자는 것을 議長께 本議員이 要請하는 것입니다
議長職權으로 決定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吳議長소하는이 있음)

○副議長(李載滄) 李議員 國務總理와 內務長官을 國會에 出席케 해요?
○李哲承議員(의석에서) 네 또 그 前에 停會하고...

○副議長(李載滉) 그러면 그것은 議事日程을變更하는 動議를 내주세요 議長이 마음대로 議事日程을變更해서 뒤를 하자 뒤를 하자 하지는 못합니다 議事日程變更動議를 正式으로 내주세요

○李哲承議員(의석에서) 議長에게 要請하지 않았어요? 議長 職權으로 해주세요

○副議長(李載滉) 議長職權에 屬하지 않습니다 議事日程 變更을 여기에서 動議를 해서서 贊成을 받으시면 좋지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참 討論을 계속하려고 하는 中에...

○李哲承議員 動議하겠습니까

○副議長(李載滉) 이 李哲承議員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再請이요)하는이 있음)

(三請있습니까?)

(成員이 안돼요)하는이 많음)

그러면 成員이 안되면 流會밖에 할것없습니다 이러한 事態로 國會가 流會를 하고 가는것이 事態를 解決하는 方案이 아닙니다

(議長하하는이 있음)

議事進行으로 말씀하시겠어요?

金東郁議員 말씀하세요

지금 이 動議는 成立이 안되었습니까

○金東郁議員 이제 李哲承議員이 動議가 成立이 안되었나 이런나

그런데 議長께서는 李哲承議員의 動議를 成立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李哲承議員의 動議가 處決되기전에 議長에게 要請할 말씀이 있어서 나온것입니다 지금 國會의 周邊에는 警察官들이 나쁘게 말해서 包圍를 하고있

고 또 좋게 말해서 相當한 數의 警察官들이 連坐를 하고있다고 듣고있습니다

지금 이 現在の 狀態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 連坐나 或은 包圍가 正當한 行爲라고는 볼 수가 없는것입니다 더우기 國會議事堂을 向해서 肉迫을 하고있다는것이 緊迫한 事態를 議長께서 議長의 職權에依해서 即刻的으로 政府에 알리고 政府로 하여금 即刻的으로 이 事態를 이 事態에대해서 撤收를 하도록 그렇게 要請을 먼저 해주시는것이 順序가 아닌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李哲承議員의 動議가 處決되기전에 議長은 國會의 代表者로서 그 職權에 依해서 即刻的으로 政府에 要請을 해가지고 이 事態를 處決을 하고 平素와같이 國會周邊은 平和스러운 空氣로 되돌리는 그런 方向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서 올라와서 議長에게 以上과같은 要請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副議長(李載滉) 暫時이문제를 議長團하고 政府當局者하고 協議하기위해서 停會를 하겠습니까

(下午 一時十三分會議中止)

(下午 一時二十五分繼續開議)

○副議長(李載滉) 그러면 着席해주세요 議員들 着席해주세요

다시 續開하셨습니다 座席을 整理해주세요 좀 座席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續開을 宣言합니다 지금 多數의 警察官이 議事堂앞에 와서 示威를 하고있습니다 警察官의 示威로 말미암아서 國會가會議를 그

만두고 散會한다는것은 國會의 尊嚴性으로 보아서나 이 示威의 性質로 보아서나 있을수없는것입니다

그래서 一部 議員들은 散會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議長으로서 散會하지않고 停會한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緊迫한 事態를 當하고있고 또 이 事態의 內容도 停會하는동안에 잘 把握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議事日程을 繼續하는것을 暫時停止하고 內務部長官을 出席케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政府當局의 責任있는 解決策을 들은後에 國會의 態度를 決定하고 다시 議事日程을 繼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異議있습니까?

(異議 없습니까?)하는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議事當局은 內務部長官이 곧 出席하도록 해주기바라며 內務部長官이 나올때까지 暫時停會하겠습니다

(下午 一時三十分 會議中止)

(下午 一時五十分繼續開議)

(司會交代)

○議長(郭尙勳) 續開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메도」치고는 좀 異色진 「메도」를 國會議事堂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巡警들이 正服한채로 지금 아마 數百名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國會正門앞에서 「메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사람들의 代表者로써 와서 國會代表者에게 무슨 理由로 「메도」를 하는지 公式的인 그사람들의 報告라고 할까 要請이라고 할까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듣는바에 의지하면 金善太

고 또 좋게 말해서 相當한 數의 警察官들이 連坐를 하고있다고 듣고있습니다

지금 이 現在の 狀態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 連坐나 或은 包圍가 正當한 行爲라고는 볼 수가 없는것입니다 더우기 國會議事堂을 向해서 肉迫을 하고있다는것이 緊迫한 事態를 議長께서 議長의 職權에依해서 即刻的으로 政府에 알리고 政府로 하여금 即刻的으로 이 事態를 이 事態에대해서 撤收를 하도록 그렇게 要請을 먼저 해주시는것이 順序가 아닌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李哲承議員의 動議가 處決되기전에 議長은 國會의 代表者로서 그 職權에 依해서 即刻的으로 政府에 要請을 해가지고 이 事態를 處決을 하고 平素와같이 國會周邊은 平和스러운 空氣로 되돌리는 그런 方向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서 올라와서 議長에게 以上과같은 要請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副議長(李載滉) 暫時이문제를 議長團하고 政府當局者하고 協議하기위해서 停會를 하겠습니까

(下午 一時十三分會議中止)

(下午 一時二十五分繼續開議)

○副議長(李載滉) 그러면 着席해주세요 議員들 着席해주세요

다시 續開하셨습니다 座席을 整理해주세요 좀 座席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續開을 宣言합니다 지금 多數의 警察官이 議事堂앞에 와서 示威를 하고있습니다 警察官의 示威로 말미암아서 國會가會議를 그

議員이 이제 交通遮斷을 當하고 그사람들과 우
 신각신 하던말에 毆打를했다 그때문에... 우
 리들은 上部의 命令을 들어서 正當한 그것을
 했지만도 警察이 오히려 國會議員을 싸우고 警
 備해야 하는 이런사람이 새로히 稠人廣坐에서 毆
 打까지 當했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 願情하는
 方式으로 하는것같습니다 그러나 이나라의 形
 便이 이같이 되어가지고 그때 아무리 國會議
 員이 國民한테 願望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國
 會議事堂에 開會時間에 오는데 아무런 命令이
 라도 天災地變이 있는 以外에는 國會議員이 出
 席을 못하게 妨害하는 行動은 法으로 못하는
 法이올시다 이것은 무어라고 하더라도 아직 거
 기까지 仔細히 모르는 警察官들의 國會에대한
 常識이 不足한때문이라고 나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될수있는대로 가르쳐서 그런法
 이 아니라 이것을 그사람들이 認識하고 앞으로
 는 그런일이 없도록 措置하는것밖에는 道理가
 없습니다 그런데 勿論 指導者로서 內務部의 責
 任者들이 시켰을리는 萬無합니다마는 그사람들
 이 正服을해서 지금 國會가 開會中에있는 이
 正門앞에와서 이렇게 하고있으니 이것 나라 꼬
 락서니가 우습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責
 任者를 要請해가지고 이사람들을 달래서 먼저
 解散을 시키고 그뒤의 問題는 다시 議論하기
 로하고 뿐만아니라 國會는 오늘 今明間에 休

會에 들어가면 長期休會가 되겠는데 이런말이
 난것을 보고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요새 國家將來란되지 이現實에 立
 脚해서 이것은 한個의 때가 때고 政治가 政治
 인때문에 이 現實을 너무 無視하고 너무 一
 方的인 強壓의도 안될것이 물시다
 그러므로 責任者를 시켜서 充分히 納得시켜가
 지고 지금 解散을 하게 하고 여기에대한 行
 動에대한 責任이라든지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措置하는때에는 우리가 將次 얘기를 하도록 그
 령게 할 생각으로해서 소위 國會責任者인 저
 로서는 內務長官이 곧 와서 「때도」를 먼저 解
 散부터 하라고 그럴생각으로 지금 부르고 있
 습니다 아직나오지를 않았는데 곧 떠났다는 기
 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開會野頭에
 도 말씀을 여쭙었지만 우리는 세상없는일이 있
 더라도 今明間에는 아마 이 選舉法을 通過를
 시키고 또 急한것 몇가지를 通過시키기에는 우
 리는 長期休會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때도」를라든지 앞에 저것으로
 해서 다른일을 中止하고 妨害當할 理由는 없
 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選舉法에 대한것을 討
 論을 繼續하다가 內務長官이 올때는 正式으로
 議長의 命令으로 「때도」를 곧 解散시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討論을 繼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不在者投票制에 대한것을 그동안에
 상당한 輿論으로 우리가 輿論이 어떻다는것도
 듣고있고 또 各自가 意見 討論을 많이 했음
 니다
 이以上 더 時間을 浪費하고 하는것은 나는
 無意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發
 言을 請求하신분이 贊反間에 상당한 數字가 저
 금 많이 있습니다 하니 이 問題에 있어서 여
 러분이 인제는 적어도 하나 하나가 自己의 한
 票 한票으로서의 意思 發表할수있는 그런 充
 分한 知識을 얻었음에 우리가 時間을 너무 虛
 費 하지말고 곧 國會唯一無二한 方式으로 손
 들어서 作定하는것이 옳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發言請求하신 여러분이
 그렇게 諒解해주시면 表決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소」 하는이 있음)
 ○李鍾南議員 (의석에서) 發言을 들어가 하지않
 어요?
 ○議長(郭尙勳) 네 그렇습니다
 政府에대한 意見을... 내가 그때 없어서 失
 手했습니다
 政府에대한 意見을 들어가되겠다고 말씀이 있
 있는때 지금 內務長官은 아직 안왔고 國防部
 長官 나와계시니까 먼저 그러면 政府側의 國
 防長官의 意見을 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國防部長官 나오셔서 여기에關한 問題를 말
씀해주십시오

(國會議員選舉法案)

(下午二時)

○國防部長官(李鍾贊) 不在投票에 對해서 國防
部의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여러번에 國防分科委員會와 以前에豫算
決算委員會에서 이問題에 對해서 말씀이 있어
서 저의 立場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
께서 잘 아시다시피 過去の 여러가지 選舉不
正에 있어서 그러한 그 正當하지 못한 選舉弊
國氣에서 軍이 大端히...: 立場에 섰던것이 事
實입니다

그런故로 今番이 四·一九事變以後에 있어서 저
의 軍으로서 이 選舉問題로 말미암아서 軍의
本然한 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影
響을 받고 싶지않다 特別히 여러가지 軍을統
率하는데 있어서의 좋지 못한 影響을 惹起시킬
수가 있고 또 指揮者로서의 自己로담 아랫사
람에 對해서 많은 統率上의 좋지 못한 일을 가
져올수있다는 그러한 그 쓰라린 經驗에서 이
것을 갖다가 以前番 選舉法改正案이 起草될적
에 저희로서의 意見을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그
機會에 이 不在者投票制度에 對해서 軍으로서
의 要請을 한것입니다

勿論 이것은 軍의 立場에서 말씀한것이기때문
에 이것을 定하시는것은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定하실 일이고 저희들은 法으로 定해진 以上
에는 法에 따라서 公正하고도 훌륭한 選舉를
갖다가 이룩하도록 모든將兵은 다 그러한 마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軍의立場을 잘 諒察해주시고
特別히 우리가 祖國防衛를 爲해서 六·二五動亂
以來에 많은 피도 흘리고 自己를 犧牲해가면
서 싸워오고 또한 戰死한사람도 많읍니다

또한 眞傷한 사람도 많고 또 남아있는사람이
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이러한 祖國防衛戰線
에서 血闘를해왔는데 이러한 問題때문에 些少
한 몇사람의 저질은 일로서 軍이 非難을 받
는 境遇가 생길때에 特別히 名譽를 尊重하는 軍
으로서는 대단한 괴로움을 禁할수가 없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오로지 軍의 本然한 使命을
完遂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그런일로서 精神的
인 團結이 깨진다든지 或은 統率上의 支障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心
情에서 더욱이 또 지난 十二年동안에 우리나라
라의 모든 政治와 더불어서 이 選舉에 많은 좋
지 못한일이 있었다는것을 아주 뼈저리게 體驗
한 結果에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要請을 드
린것입니다
國防部當局이 이 選舉制度를 갖다가 要請한 그
趣旨는 거기에 있고 여러분께서는 이걸 잘 諒
解해주시고서 여러분께서 決定을 해주시는데로
저희들은 法에 따라서 分明正大한 主權行使에
있어서 軍人將兵 各自가 훌륭히 自己의 所信
을 表現할수있도록 이렇게할 作定입니다 以上
입니다
(장소)하는이 있음)
(議長)하는이 있음)
○議長(郭尙勳) 質問 發言을 要請했는데 質問

은 안하기로 作定되었읍니까?
(안하기로 했어요)하는이 있음)

(場內廳然)

가만히 계세요 勿論 國防當局이나 內務當局에
疑心난 일이 있으면 물을수있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 見解만 들을것
이지 質疑할 必要가 있느냐 그런 理由로서
아까 여기에 다른분이 司會를 볼때 그렇게
作定이 되었다고하면...:
(場內廳然)

(內務長官 出席시켜요)하는이 있음)

지금 國防長官의 說明으로서는 國會에서 作定
되는대로 그렇게 實行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終結的으로 얘기를 했는데...:
(內務長官 불러요)하는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內務長官이 出席하고있읍니다
내가 推測컨대는 아마 國會앞에 벌어진 事態
때문에 그 緊急會議가 없는가? 그렇게 推
測이 됩니다 했으니 지금 여러분이 기여코
國防長官에게 國會作定대로 服從하겠읍니다 하는
데도 質問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發言을 막
을수가 없읍니다 質問하시요
斐聖某議員 質問하세요 答辯如何를 國防長官
께 말기고...:

○斐聖某議員 지금 國防部長官께서 말씀하시
를 軍隊 統率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障礙나 阻
路가 없는지를 探擇해보기 爲해서 不在者投票
를 하는것이 좋을것같다 그런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勿論 오늘 時間關係도 있어서 긴 말씀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본議員이 생각하기에
 不在者投票을 하게된다고 하며는 아마執
 權政黨에서 出馬한 國會議員이 將星級乃至 領
 級을 누구나 똑같이 한번씩 만나가지고 自己
 出身區에 有利한 票을 던지게커림하기 爲해서
 相當하니 類案한 連絡과 折衝이 있어가지고
 軍隊統率에 重大한 支障이 온다고하는 아마缺
 點이 오지않는가? 하는것은 지금 現在 疑心
 한다는것 보람도 들림없는 事實이라고 보는것
 입니다

萬若 不正이 있다고 할때에 集團된 不正이 있
 다고하면 그不正을 二百三十區에다가 分散시키
 는 結果가 또 온다 同時에 集團된 公明選舉를
 하게된다고 할것같은면 二百三十區에 選舉를해
 도 公明選舉는 될수있으리라보고 보는데 우리가
 이法을 만드는것은 執權政黨이 오늘날의 良心과
 來日의 어떤 良心이 바꾸어지기 設會안했다 온
 치더라도 百名이면 百名의 與黨議員에게 좀
 더 有利한 政策을 自己 앞으로 돌려볼려고
 할적에는 畢竟執權政黨의 政策이 高位軍의 머
 리속에 壓力이 안간다고 하는것은 大韓民國과
 같은 水準에있는 現時下에는 期待하기 困難하
 고 期待해본 일이 없을뿐만아니라 事實없다는
 말을 大體의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軍隊統率에 支障이 있다는 말을
 國防部長官이 말했었는데 내 率直한애기
 로 내가 執權政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區
 域에 士兵이 한 二千名되는데 한票라도 더

받기위해서 軍隊將星이나 領級을 折衝할적에 아
 마 그분들은 自己의 職位에 直接關聯되는 關
 係로 野黨國會議員 말은 고개를 東으로 西로
 돌리고 與黨 國會議員 말은 돌아야 되겠다는
 處地가 오지않는다고 하는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保障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러때 軍隊統率에있어
 서 分散: 말하자면 不在者投票을 하는것만이
 統率이 온다는 얘기는 實質上 體験上에서 가
 저오는 理論體系에 맞지않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將
 星이나 領級들에게 물을적에는 軍隊는 어대까
 지나 命令에 움직이기 때문에 執權政黨에 屬
 해있는 人士가 우리한테 壓力을 加할적에는 누
 구나 自己의 地位를 생각해서 그말을 안들어
 줄수없는 結果가 온다 이런것을얘기 하는것입
 니다
 勿論 公明選舉를 한다고할때에 그런 集團해서
 하자나 分散해서 하자나 마찬가지로 不正을
 적게하기爲해서 分散한다고하는 얘기를 前提로
 할때에는 勿論 不正이 있다고 할때에 二百三
 十三區에 이 不正이 안간다고하는것은 아마
 全國民이 조금도 疑心하지않을수있는 處地에 누
 구나 다같이 疑心할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또
 하나 지금 現在 區域에서 出馬하려는 사람
 이 누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또 나온다고하더라도 누가 무슨 性分을 가지
 고 있고 누가 무슨 性分을 가지고 있는것을

所謂 國會議員으로있는 제 自身도 모르는데
 一線에 二年이나 三年前에 가서 때로는 休暇
 를 내도 自己집에를 갈줄 몰라서 完全히 除
 隊하도록까지 軍部에서 從事하는 軍人들이 있
 는데 이분들이 末端에서 出馬한 所謂 十萬選
 良의 代辯者로 나올수있는 사람의 性分과 經
 歷과 人格과 모든 實情을 알수있을것이라는
 얘기는 大韓民國의 士兵의 實情을 모르는 애
 기일뿐만아니라 率直한 말슴으로 나는 그걸
 모른다고 하는때있어서 自由選擇權의 하나의
 拋棄的 法律을 만든다고하는 制限原則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理由로는 지금 後方에있는 사람이 方今 말슴한
 바와 같이 누가 出馬하는것을 現役國會議員이
 自己 區域도 完全히 檢討把握 못한 이마당에
 있어서 지금 六十三萬이나 軍隊가 後方의 所
 謂出馬하려는 사람을 다 안다 이런 모른
 얘기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集團選舉
 를할적에 그 옆에서 議員出馬하는 사람의 講
 演을 듣도록 만드는것이 愧이해로우나 그 말
 이에요
 共產黨이 出馬해가지고 以北에 利敵行爲의인
 政見發表가 있다면 몰라 그러되 民主主義 國
 家에있어서 軍隊가 民主主義政治의 實情을 알
 므로써 그 軍隊는 完全히 共產主義對 民主主
 義對라고 하는것을 알수있지않을까 저는 이렇
 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不在者 投票로 만든다고 할 때
에 내가 結論을 한가지만 본고싶은것은 내가
後進國家에 있어서 執權政黨이 法律을 通過할
의 實情하고 그뒤에 政權을 잡은뒤의 實情하
고 距離가 똑같이 있다고 하는것은 歷史上 보
지 못했는데 이번이 民主黨이 政權을 잡는다하
더라도 이거 未安한 애기지만 個人的으로는 그
權力을 多少 利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否定 못합니다. 너무 露骨的으로 壇上에서 말
하는것은 우리黨을 自身이 自家矛盾된 指摘
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事態가 온다고 할때에
필로 막느냐 그말이예요 그러기때문에 제가
本論으로 말씀드리고싶은것은 集團內에서 不正
이 설명 있다고하면 한두군데서 끝나고 말지
만 이러한 不正이 萬若 온다고 할때에 二百三
十區에 그 不正이 간다하면 率直히 애기해서
軍隊에 壓力을 加한다고하면 二百三十三에 全
般的인 影響을 가져올수있는 結果가 안오리라
고 하는것은 壇上에 여기直接 계시는 여러분
보다도 國民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不正이 오리라라고 疑心하는
問題를 前提로해서 法을 만든다고하면 이 萬
若에 不正이 있다고 할때에 不正이 二百三十三
군데나 온아진다고하는 그런 危險性이 있는
法... 執權政黨이 自古以來로 權力을 잡아가자
고 權力을 全然 아까본 實例가 없읍니다 나
率直한 애기입니다 그리고 人事權을 執權政黨
이 軍隊人事權을 가지고있는데 어찌해서 執權政
黨의 思考方式에依해서 안 돌아갈수있느냐 또
그러면 不正投票를 한다고해서 아카도 몰았읍

니다만 個人이 가서 적을적애 그 軍隊는 어
떻게하느냐 重大한問題가 와가지고 軍隊統率에
는 莫大한支障이 와서 大韓民國 앞날에 大端
히 걱정되는問題가 오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
서 한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議長「野尙勳」) 桂洙淳議員...
○桂洙淳議員 이 軍人の 不在者投票問題에 對
해서는 오랜時間 曰可曰否 討論이 있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理論的으로 이制度가 옳은것이냐
不當한것이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別로 말
씀안드리겠읍니다 단지 簡單히 한가지 말씀드
릴것은 이 不在者投票를 가지고서 修正案을
提起하신 李成株議員이 本壇上에서 말씀하시
기를 마치 民主黨이 野黨으로 있을때에는 이
軍人の 不在投票를 主張했는데 오늘 與黨이 될
可能性이 많으니까 이 不在者投票를 反對한다
다시말하게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五·
一五選舉 五·二選舉 或은 또 三·一五選舉를
通해서 自由黨 여러분이 軍司令官들에게 壓力
을 加해 가지고서 軍人の 不在者投票 代理投
票 換票 많이한 事實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
날날 이 收復地區에서 江原道 收復地區에서
當選되어오는 國會議員은 事實上 軍人の 自由
스러운 意思에서 當選된것이 아니고 어떠한
司令官이 都資金으로서 指名해서 代理投票 或
은 換票로 이렇게 當選된것은 事實입니다 그
렇기때문에 自由黨에 所屬하신 李成株議員께서
는 아직도 그런 觀念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지 모르지만 四·一九革命後에 어느누구가 上

官의 命令에依해서 不正投票를 하고 換票를 하
고 그런 事實이 없읍니다 저는 事實 江原道
出身입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우리 民主黨이
與黨이 되면 野黨이 되면 앞으로있어서는 이
換票 不正投票 이것이 없으리라는 前提下에
우리가 主張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하게 되면 만일 不在者投票를 막는
意味로서 防止할 義務로서 이 不在者投票를
하게할것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할것 같으면 그것은 어느 師團長에있어
서 萬若 國防部長官 或은 特務部隊長 師團長
이 壓力을 加해가지고 與黨에 投票를 하라할
것 같으면 송두리채 이 部隊長이 郵便으로 投
票할때 投票用紙를 보내주지않고 송두리채 與
黨에 써가지고 郵便으로 發送을 할수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從來는 直接 投票보다도
이 不在者投票야말로 換票하고 不正投票하기
爲해서 제일 賢明한 이러한 手段인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李成株議員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우리 民主黨이 與黨으로 이 不在投票를 反對
하고 마치 차차 與黨이 될 可能性이 있으니까
종래의 自由黨式으로 換票 代理投票 이것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데 對해서는
나는 全面的으로 李成株議員의 思考方式의 是
正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그以上 이問題에 對
해서 理論的으로 或은 理論的으로 曰可曰否하
는것에 對해서 國會議員이 다 알기때문에 말
씀 안드립니다

그러면 不正投票를 한다고해서 아카도 몰았읍
니다만 個人이 가서 적을적애 그 軍隊는 어
떻게하느냐 重大한問題가 와가지고 軍隊統率에
는 莫大한支障이 와서 大韓民國 앞날에 大端
히 걱정되는問題가 오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
서 한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議長「野尙勳」) 桂洙淳議員...
○桂洙淳議員 이 軍人の 不在者投票問題에 對
해서는 오랜時間 曰可曰否 討論이 있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理論的으로 이制度가 옳은것이냐
不當한것이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別로 말
씀안드리겠읍니다 단지 簡單히 한가지 말씀드
릴것은 이 不在者投票를 가지고서 修正案을
提起하신 李成株議員이 本壇上에서 말씀하시
기를 마치 民主黨이 野黨으로 있을때에는 이
軍人の 不在投票를 主張했는데 오늘 與黨이 될
可能性이 많으니까 이 不在者投票를 反對한다
다시말하게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五·
一五選舉 五·二選舉 或은 또 三·一五選舉를
通해서 自由黨 여러분이 軍司令官들에게 壓力
을 加해 가지고서 軍人の 不在者投票 代理投
票 換票 많이한 事實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
날날 이 收復地區에서 江原道 收復地區에서
當選되어오는 國會議員은 事實上 軍人の 自由
스러운 意思에서 當選된것이 아니고 어떠한
司令官이 都資金으로서 指名해서 代理投票 或
은 換票로 이렇게 當選된것은 事實입니다 그
렇기때문에 自由黨에 所屬하신 李成株議員께서
는 아직도 그런 觀念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지 모르지만 四·一九革命後에 어느누구가 上

官의 命令에依해서 不正投票를 하고 換票를 하
고 그런 事實이 없읍니다 저는 事實 江原道
出身입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우리 民主黨이
與黨이 되면 野黨이 되면 앞으로있어서는 이
換票 不正投票 이것이 없으리라는 前提下에
우리가 主張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하게 되면 만일 不在者投票를 막는
意味로서 防止할 義務로서 이 不在者投票를
하게할것 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할것 같으면 그것은 어느 師團長에있어
서 萬若 國防部長官 或은 特務部隊長 師團長
이 壓力을 加해가지고 與黨에 投票를 하라할
것 같으면 송두리채 이 部隊長이 郵便으로 投
票할때 投票用紙를 보내주지않고 송두리채 與
黨에 써가지고 郵便으로 發送을 할수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從來는 直接 投票보다도
이 不在者投票야말로 換票하고 不正投票하기
爲해서 제일 賢明한 이러한 手段인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李成株議員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우리 民主黨이 與黨으로 이 不在投票를 反對
하고 마치 차차 與黨이 될 可能性이 있으니까
종래의 自由黨式으로 換票 代理投票 이것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데 對해서는
나는 全面的으로 李成株議員의 思考方式의 是
正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그以上 이問題에 對
해서 理論的으로 或은 理論的으로 曰可曰否하
는것에 對해서 國會議員이 다 알기때문에 말
씀 안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나는 그러한 理論問題
가 아니라 事實問題로서 이問題에 對해서는

六月六日 豫算決算委員會에서 國防長
 官과 內務部長官의 出席을 要求하고자 하고 이번
 選舉費 豫算審議할 때에 내가 政策質疑을 했
 던 것임이다. 그때 國防長官의 말씀은 무슨 軍
 隊의 絕對의 壓力에 依하여 各 部隊長
 이 從來의 政治的 壓力에 依하여 各 部隊長
 이 從來의 本意 아닌 選舉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
 으면 이것을 멀리 各故鄉에 있는 不在者投票을
 해가지고서 海대로 換票 或은 代理投票을 防
 止해달라하는 이런 말씀이지 이것은 軍의 自體
 로서 軍統率上 絕對的으로 不在者投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當時에 내가 國防
 部長官 內務部長官에 質問을 했습니다. 內務長
 官 말씀이 이問題의 政治的 可否는 論할 問
 題가 아닙니다. 現實問題로서 選舉를 管理하는
 담당하는 司直當局으로서는 內務部長官도 憲法
 이 規定한 四十五日內에 選舉하는 이마당에 있
 어서는 絕對로 不可能하다 이것을 證言했습니
 다. 六月六日날 速記錄에 分明히 써 있습니다.
 이 內務部長官이 나와서 이 問題에 曰可曰否할
 必要는 없지만 憲法에 規定된것 四十五日 다
 시말하던 이 四十五日 오날까지는 三十五日 남
 었습니다. 三十五日內에... 四十五日은 不可能하
 다는 것을 明確히 證言했습니다. 이 速記錄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서 이것이 不
 可能하나 나는 事務的으로 現實的으로 暫間 判
 斷드립니다. 적어도 投票權을 以上에는 그 投
 票는 그러니까 어떤 政黨政策을 審判하고 또
 立候補者의 略歷이라 할까 人物을 判斷할 그런
 機會를 주어야 할 것임입니다.

그러면 具體的으로 例를 들게 되면 濟洲道라
 든가 江原道麟蹄郡, 亥安面 三·八地區에 와서 服
 務를 하는 軍人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濟洲道에서 選舉公告後날부터 五日以內에... 五
 日間은 登錄應勤期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選
 舉公告한지 廿새동안에 거기에 다섯사람이면 다
 다섯사람이 立候補者에 登錄됩니다.
 그러면 마감된 다음에 그 다섯사람의 略歷을 그
 所屬政黨 或은 人物의 略歷을 써가지고 印刷
 해가지고 하는 때에는 約六日동안의 必要합니다.
 略歷을 다섯사람의 略歷을 印刷하는 때에는 最
 小限度 五日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벌써 登錄마감이 廿새동안 政黨所屬의
 略歷印刷하는데 廿새동안 印刷 걸립니다. 그것
 을 郵便으로 보내서 麟蹄산골로 해서 三·八線
 까지 最小限度 一週日 걸립니다.
 그러면 十七日 걸립니다. 十七日 걸려요. 그러면 麟
 蹄郡 第七師團에서 南韓二百三十區에서 오는 投
 票用紙... 名單을 받아가지고 木浦區에는 누가
 나오고 서울에는 누가 나오고 釜山에는 누가 나오
 고 이 略歷을 받아가지고 整理하게 되면 相當히
 時日이 걸립니다. 그整理한 것을 가지고서 한部
 隊에 二百區에서... 한區에서 平均 다섯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約千名가량의 略歷을 印刷해가
 지고서 할려면 春川에 나와서 印刷을 하든지
 서울과 와서 印刷을 하든지 印刷하는데 最小限度
 五, 六日이 걸립니다. 最小限度 六日 걸릴 것임
 으려면 이것으로 해서 이미 十七日 걸릴 것임이다.
 그러면 걸려가지고서 그러면 軍人들이 적어
 도 二, 三日 동안 判斷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二, 三日 동안 하는데 처음의 登
 錄마감에 廿새동안 印刷하는데 廿새동안 郵便
 으로 보내는데 이 몇동안... 十七日 거기에 印
 刷하는데 六日, 二十三日 이틀만 研究할려면 二
 十五日 그대가지고 이분들이 投票을 하게 되면
 濟洲道로 들어가는데 約 一週日 걸립니다. 最
 小限度 一週日 걸립니다.
 그러면 時間問題로 보아서 三十四, 五日이 걸립
 니다. 여기에 曹泳孫議員이 選舉法起草委員會委員
 長입니다. 이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普通選舉
 보답도 이 不在者投票을 하게 되며는 最小限度
 印刷 늦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印刷동
 안 늦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實地問題로 보
 아서 여기에 內務當局도 제시지만 이 不在者投票
 의 趣旨에 宣傳文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別
 途로 한다 하더라도 實地問題로 보아서 始作이 되
 며는 이 不在者投票은 實質的으로 濟洲道에
 가고 木浦에 가는 데는 期限이지나서 無效投票가
 되는 것임입니다.
 萬一 國防長官이 軍人의 政治에 干涉하지 말라
 이라는 基本方針에 依해서 軍人의 投票權을 基
 本的으로 抹殺한다면 別問題지만 事實問題에 있
 어서 濟洲道에 있던 慶尙南道에 있던 어떤 地
 域에 있던 한사람이라도 이 總選舉에 參加시키
 겠다는 意味에서 이 不在者投票을 한다고 할 것 같
 으며는 現實問題로 不可能한 것임입니다. 아마 內
 務部長官이 速記錄에도 明白히 써있고 내 아
 까 地方局長, 指導課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事
 實上 不可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이 不在投票를 實
實施해가지고 江原道 其他 全區에서 約 六十
萬名의 軍人票을 갖다가 實質의으로서 拋棄狀
態에 이르게하자 이런것은 나는 중대한 問題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選舉
法改正委員會에서도 이 憲法이 改正되고 한번
實施하는 民權員選舉에 있어서는 이 不在者投
票을 實施하지말자고 이렇게 된것입니다.

또 公聽會에서도 內務省이 나왔는데 國防部를 代
表한 李准將 하나만이 強硬히 이것을 主張했
지만 內務部地方局長 其他 모든 關係官吏는
實施 不可能하다고 證言했습니다. 現實問題로
不可能해요. 또 內務長官도 證言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理論的으로 政策的으로 曰可曰否할 問
題가 아니라 現實問題로 오늘날 三十五日後에
選舉를 實施하게 될 이마당에 있어서는 不可
能한것입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實
實施한다는것은 요전번에 말씀했어요 誤解받기
쉽습니다. 이것 중대한 政治的 伏線이 있고 또
國會議員 自身들이 自己의 利害關係에 대해서
이것을 主張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서 그地方에서 二選 三選이
러한 國會議員들 더구나 野黨國會議員들에게 有
利한지는 모르겠지만 自由黨 國會議員 여러분
께서는 이 不在者投票가 대단히 不利한것입니다.
事實 不利해요. 이러한 利害關係 혹은 政黨間
계가 여기에 潛在한다는것은 그것은 別途로 하
지만 現實問題로 不可能한것입니다. 國防長官께
서 選舉擔當長官이 아니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國防長官은 單純

한 意味에서 이 政治的 干涉을 받기 싫다는 그
러한 意味에서 이 不在者投票를 갖다가 贊成하
지지만 그것은 事實 研究不足입니다. 政治的으
로 壓力을 加할려면 從來投票보다도 더 容易
하고 確實性있는 그러한 投票라는것을 아셔야
될것입니다. 하물며 國防長官은 選舉管理長官이
아닙니다. 內務長官은 實施不可能하다는 것을 말
씀한 以上에는 우리는 이러한 問題를 더 討
論할 必要없이 적어도 與野 兩黨이 選舉法改
正委員會에 黨代表를 내가지고서 이問題를 論
議한 結果에 內務當局의 意見을 들어가지고 理
論은 別問題로 하지만 이번 選舉만은 實施하
지말자고 이렇게 決定했것같으면 이 非常立
法에 있어서 時間을 節約하는 意味에 있어서든
저도 政治道義上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原案대로
通過시키는데 不拘하고 李成株議員께서 勿論 여
기애 나와서 修正을 할 權利는 있습니다. 하
지만 적어도 이 며칠 남지않은 超非常立法時
期에 있어서 이問題를 가지고 다시 曰可曰否
해가지고 자칫하게 되면 憲法이 所定한... 四
十五日以內에 選舉를 實施 못하는 이러한 結果
를 招來하게되면 重大한 混亂이 올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議員이 말씀 드리는것은 政治
的으로 政策的으로 좋으나 나쁘나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別途로 그것은 다시 研究하기로 하
고 與野 兩黨 協商한 그대로 이번만은 이 制
度를 實施하는것을 保留하고 적어도 요다음에
選舉하는때에 이 不在者投票를 實施하기위서는
最小限度 四十五日以前에 公告하게됩니다. 四十

五日前에 公告해야됩니다. 그런것을 생각해가지
고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曰可曰否하는것이 意
味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內務長官이 나가셨는데 나는 國防長官께
말씀 드리는것은 國防長官은 이問題에 대해서
實施 可能하다든지 不可能하다든지 이러한 問
題를 論할 權利가 없고 오직 國防部에 그
基本만 말씀드리고 나머지애 대해서는 內務長
官에 대한 質問을 저는 保留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議長(郭尙勳) 지금 實疑라고 해서 두분이 했
습니다. 國防長官이 거기애 답변하시겠어요? 답
변하세요.
(場內騷然)
朴順碩議員! 저 질문은본인이 왜 그렇게 자리
에서 떠드십니까? 좀 조용할 주세요. 답변하
시겠습니까? 좀 나와서 답변하세요.
○國防部長官(李鍾贊) 그러면 지금 桂洙淳議員
의 質問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저희의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이것이 重復된 感이 있습니다. 마는
저희 생각에는 이 不在者投票制度는 軍의 要
望으로서 이 公聽... 起草할적에 저희들이 要
請한것입니다. 이것은 定하는것은 國會에서 하
실 職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
해서 要請한 以上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
시라는것을 갖다가 저희 立場으로서 말합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 立場을 좀 鮮明히 할것은 必要하기때문
에 여기에 말씀드리었는데 첫째로 이것이 지
금 어떠한... 結果의으로 어떠한 立候補者를

위한 結果가 나타나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事實 結果는 두고 봐야 알 일
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러한 結果를 豫測하
고서 法을 만들지않았습니까 法을 만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러한 저희들의 要請이
지 누가 더 有利한것이라든지 누가 더 不利
한것이라든지 그러한 結果를 생각하고자 이것
을 생각해 본 問題가 아니라 이것을 명백히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이 軍의 政治關係를 갖다가
대단히 싫어하는 나머지 六十萬이나
넘는 우리 將兵의 政治에대한 하나의 參與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結果가 나타나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
지 않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不在者投票라는것
은 大韓民國 國會를 構成하기위해서 韓國內에
서 自己出身地에다가 投票하는것이때문에 이
國民의 主權을 가지고서 參與하고 있는것이니
다 다만 場所가 自己의 現在에 있는 駐屯地가
아니랄뿐이지 이것은 충분히 自己意見을 反映
시킬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오히려 제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이
參與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六十日以上 거기에
居住하지 않았으면 投票權이 없게 되어있는데
萬一 그렇게 안하면... 不在者投票制가 아니라면
一線에 온사람이라든지 와서 六十日 안되는
사람은 一線에서 投票 못합니다 그러나 自己
있던데다가 投票하면 投票할수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例를 들어서 七百名人所 했다고하면...
論山訓練所에 들어갔다대면 六·七이 四十二四

萬餘名이 投票할수있다고하는 結果가 나타난것
입니다 그러나 海外에 나가있는 武官 其他
船舶을 타고있는 사람들이 實際로 投票를 하
기때문에 배에서 내려온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法으로 할것같은데 萬一 이것을
措置할수가 있다면 東海岸 西海岸乘組員도 그
자리에 앉아서 投票할수있는 結果도 되는것입
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져들어가면 이것은
반드시 見解의 差異입니다마는 꼭 一方的
으로 어떻게된다 이런것만은 여기서 速斷하기
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要는 거듭 말
씀드립니다마는 軍의 立場은 어디까지나 軍
隊가 作戰을 하고 또 國家防衛의 重要な 任
務를 遂行하는 軍으로서 여기에 이러한 어러
운 문제에 支障을 받고 싶지않다 또하나는 萬
一에 來日이라도 情勢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
는 그런경우가 있다고 假定할적에 있어서 그
런적에 거기에서 投票를 못하는 경우... 대단
히 하기 어려울... 選舉管理를 하기어려운 境
遇가 생기더라도 國民主權인만큼 이것은 제
故鄣에다가 便紙를 써보내면 投票할수있다고하
는 利點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 아무 어렵지 않은 境遇에 있어서 選舉를
치루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제생각에는 우리들이 지금 이렇
게 要望한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要望이고
이것을 여러번해서 決定지어 주시면 決定된
法에 따라서 違法精神을 가지고 公明正大한
主權行使를 저희들 將兵一同이 다할 마음의 準
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

신 그런 그러면 政治의 利用을 當한다든지 또
어떤 結果가 나타나든지 그런것을 저희들로서
는 事實 모르는 事實이고 또 생각해볼 必要
도 없고 또 생각해보지도않은 事實입니다
다만 지난 過去에 너무 쓰라린 모든것을 생
각할때에 모든將兵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에서
우리는 自己의 本然의 길로 邁進할수있는가
하는것이 첫째 要望입니다 그러나 投票하
다는 사람들의 要望이니까 될수있는데로 여러
분이 그것을 尊重해주셔야되고 全體的인 우리
의 法을 만드는 範圍內에서 이것을 많이 念慮
해주셔야되고 여러번들께서 決定해주시면 저
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公明正大하고 훌륭한
主權行使가 되도록 努力할것이고 또 그런 準備
를 하고있다는것을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議長(郭勳勤)李哲承議員이 審議小委員會의 經
過報告를 한답니다
○李哲承議員 當初에 法을 審議할때는 自由
黨도 너무히 말씀했읍니다마는 代表가 正式 考
히고 民主黨도 正式 代表가 뽑혀서 協商選舉
法이라고 생각하고 論議를 했읍니다 그동안
不在者投票를 論議할때에 審議小委員會에있어서
는 不在者投票는 全的으로 原則上 矛盾이고
現實上 不可能하지만 이것을 反對한다는 說이
있었고 不在者投票는 좋은 制度이니깐 이것은
進歩的인 制度니깐 이것을 採擇하자는 論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當局을 불러다가... 內務部 國防部 當
局을 불러다가 물어보았읍니다
國防部는 陸海空軍 輿論調査를 했다고하는 것

이 種의 形式的인 小部分的의 輿論調査를 한 結果에 海軍 空軍은 全的으로 反對입니다 絶對多數의 陸軍의 多數意見이 本部勤務라든지 幹部側의 意見이 不在者投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것이 그다음에는 陸軍意圖에 歸一해가지고 軍隊는 不在者投票를 해 달라 이러한 意見이 왔었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充分히 一問一答을 할때에 軍隊가 理想的으로 하두 自由黨治下에 있어서 不正選舉를 많이 해서 糾彈을 많이 받아 놓니까 더군다나 用兵이나 統率上 支障이 있게 되니까 이 選舉를 軍隊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自己네들이 軍隊가 완전히 政治에 中立化를 못한 軍隊의 指揮官들이 自己들이 잘못된 것을 마치 制度가 잘못해가지고 한것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希望으로 말하면 全적으로 軍隊만은 選舉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希望의 精神의 前提 밑에서 그다음에 좀 낫다고 하는것은 不在者投票라고 하는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不在者投票라고 하는것으로서 軍隊의 選舉關與나 혹은 政治關與의 可能性이 많은것은 될수있는대로 迴避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氣分으로서 不在者投票를 主唱한 것에 不適當것입니다

당초에 不在者投票라고 하는것은 囹圄生活을 해서 刑務所에 들어가 있는 사람 留置場에 있는 사람 잠간... 選舉人名簿에는 六十日以内에 登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出他이기 때문에 出

他關係로 投票를 할 時間에 못하게 되는 사람에게 不在者投票를 하게 되어 있고 美國같은데에도 出動을 했기때문에 出動한 사람에게 不在者投票를 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軍隊가 아무리 해달라內務部에서는 아무리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原理原則에 抵觸이 되면 이것은 도저히 할 道理가 없는것입니다

우리 選舉法을 根本적으로 틀어 고칠려면 居住地制度... 居住權을 어떻게 採擇하느냐 다 시달하면 六十日 居住하지 못하면 投票權을 주지 않는다 하는 一般的인 規程이 있기때문에 軍人이 一年이고 三年이고 自己故郷을 떠나가지고 一線勤務를 하는데... 一線勤務를 하는데는 長期間 六十日以上을 居住하니까 投票權을 줄수가 있으며 後方에서 一般市民들은 六十日만 거기 없어도 投票權을 안주는데 軍隊라고해서 二·三年前에 居住地를 離脫한 사람을 投票權을 준다고 하는것은 原則에 違背가 되니까 안된다고 하는것입니다

인것입니다 지금 後方에도 한市內에 있으면서도 이 洞에 있다가 저 洞으로 옮기더라도 六十日以内에 거기에 居住를 하지않으면 投票權을 안주게 되어서 一般사람은 市에 살고 있는 사람도 投票를 못하게 規定되어 있는것입니다 軍人이 後方的 家族에다가 大邱살다가 釜山에 이사가면 六十日以内에 이사가면 아무리 軍隊에 入營 했더라도 投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長官의 지금 說明은 全혀 그 內容을 모르고 軍隊는 入營만 하면 선제든지 永久... 所謂 登錄이라고 하는 制度가 있습니다 選舉人名簿에 補充登錄 定期登錄 永久選舉人名簿 制度가 있는데 永久選舉人名簿을 自己에 申告에 依해서 하는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一年에 한번씩 選舉人名簿을 確定해두고 三個月後에 補充名簿을 作成하게 되기 때문에 居住權問題에 있어서 根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것을 國防長官은 모르고 말끔하시니까 이 問題는 內務部라든지 相議를 하셔서 答辯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모」를 하고 있는 이런 事態下에 이번 選舉가 果然 現狀維持를 해가면서 秩序整然하게 選舉가 되어 질는지 걱정스러운 이때에 制度上으로 根本的으로 飛躍的인 制度를 採擇해가지고 果然 될것이나 하는것을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改正選舉法은 營外居住者 S·T 以上の 下士官以上 營外居住者는 江原道에 있어서의 居住地에 投票를 하게됨 되어있고 營內居住者는 不在者投票로 自己... 濟州道면 濟州道에 投票하게 되어서 二元的으로... 投票하는 방식이 두번있읍니다 選舉를 두가지로 하고있어요

한 部隊內에 地方에서 二百區에 出馬한때 選舉運動이 벌어질것이고 그 地域에서 나온 사람이나 또 選舉運動이 벌어져서 軍隊는 이 選舉를 混亂을 惹起할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二元的인 選舉에다가 每年 選舉直前에는 有權者의 登錄을 軍人들은 「싸인」을 해가지고 一線에... 高地勤務한 사람들도 全部後方으로 오든지 或은 小隊長 中隊長을 通해서 自己가 「싸인」을 해서 國防部에 내어가지고 그것을 各區 選舉委員會에 보내서 選舉人名簿에 「싸인」의 臺帳이 登錄되어가지고 그것을 이번 三十日동안에 한다는것입니다

고 그것을 이번 三十日동안에 한다는것입니다 三十萬大軍을 거의... 六十萬이면 六十萬 三十萬이면 三十萬을 全部 國防部에서 「싸인」을 해서 後方에 보내서 選舉에 整理해서 臺帳을 만들어놓는다는것인데 國防部長官은 아시는바와같이 中隊長이나 小隊長도 圖章을 한두매 가지고

참으니깐 月給받 되면 月給 副食費같은것도 中隊長이 圖章 찍어서 月給도 찍어서 中隊事務費로 補充해버리고마는 이런 傾向이 있는데 제 이를 석자 겨우쓰는 사람이 「싸인」을 해서 中隊長을 통해서 特務隊를 통해서 聯隊長을 통해서 가지고 通信部를 통해서 全部 後方의 選舉區에 登錄이 되면 李哲承하면 「싸인」을 겨우 그리다시피 쓴 「싸인」을 갖다가 萬一로 偽造했을때에... 「싸인」 偽造했을때에 選舉委員會에

는 鑑定할 道理가 없읍니다 一線 選舉區마다 二千票乃至 三千票가 있는데 蔚陵島라든지 오늘날과같이 亂立되어있는 이번 選舉運動때에... 長官 이번 選舉運動은 亂立되고 있는것만은 必然的입니다

그럴때에 百票差異 한票差異라도 當落을 左右할수밖에 없는 이 版에 「싸인」이 曖昧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治安局 中央搜查局에 보내가지고 檢證을 해가지고 그것이 判定해서 當落을 決定할려면 二百區區에 한 百區씩 그런 事態가 나올적에 이것은 穩健하게 秩序있는 選舉를 해볼려고 努力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할수가 있는가 國防部는 이런 시골에서 三元的인 選舉

「싸인」을 언제든지 먼저하여 營外居住者選舉를 따르하여 營內居住者選舉를 따르하여... 營內居住者도 一線勤務는 小隊長도 營內居住者를 하고 있습니다 B·T도 作戰上 營內居住者를 하고있읍니다 이런 사정을 區分을 해가지고 할려면 編制上 國防부가운데 選舉局을 하나 만들지않으면 안

되는 據過가 있고 聯隊마다 選舉參謀 하나씩을 두지않으면 안될 이런 번거로운 일을 軍隊가 一線干城으로서 오로지 敵軍을 물리치는 面에 置重해야 할것인데 이러한 複雜한 節次를 만들어가지고도 理想的이라고 할수있는가 여기 에 대해서 國防部長官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選舉法은 憲法이 通過되고 即時에 우리는 事前運動을 못하게 되어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戶別訪問도 못해 人事狀도 못들려 事前運動을 여러분 할수있게 되었지요 一般的으로 알려져있는 既成人物도 지금 대단히 困難한 形便에 빠져있는데 하물며 雨後竹筍처럼 나오는 立候補者들이 自己選舉區에 나와있는지 一年前이나 이따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누가 나을는지 印刷物하나 보낼수가 없을때에 高地勤務나 營內居住하는 사람이

이 果然 金가니 朴가니 選擇의 自由를 가지 不在者投票를 할수있겠는가 한번 常識적으로 國防部長官이 말씀해주시오 그러면 「라디오」나 放送이다 新聞을 보니까 안다고 그러지만 아까도 某議員이 말하듯기 自己出身區에 自己 「라이벌」이 누구 누구 立候補한지 모를 地域입니다

그런데 一線勤務에서 外出도 못하고 片紙도 國防豫算이 없어서 封緘이 없어서 通信部도 莫大한 國防費의 負債때문에... 交通部도 遞信部도 負債때문에 大部分 官營料金들이 國防部豫算을 編成할수가 없읍니다

官營料金 때문에 選信部는 葉書 交通部는 料金 때문에 結局은 封緘葉書 一年에 한번밖에 못하게 되며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一線에서는 新聞을 못붙들 땅에 있고 그前에는 強制로 서울新聞만 師團C P나 聯隊C P에 서울新聞은 強制로 보여 주여 가지고 있는데 新聞에도 後方에 누구 누구가 立候補하는지를 말하지도 못하고 現在軍隊가 新聞을 볼수도 없고 事前運動도 할수없는 이마 당에 있어가지고 果然 一線의 士兵들이 누가 옳다고 選擇의 自由로 해서 不在者投票를 할수 있는나 하는것은 이것은 三尺童子도 認定할수가 없어서 結局 가서는 不在者投票는 六十萬軍隊의 投票權을 剝奪하자는 結果를 가져오기때문에 結局은 아까 여러분이 말하듯기와 마찬가지로 삼작 들러 不在者投票라는 名稱을 걸어가지고 軍隊들은 過去 當身대들이 不正選舉의 앞잡이 세워놓고 오늘날 와가지고는 또 거운 國에 또다시 그럴까 무서우니까 選舉權을 안주었으면 좋겠다는 議論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럴수는 없고 國民主權을 剝奪한수가 없으니 이제는 不在者投票라는 「아드벌문」을 올려놓고는 삼작 주數 權權을 시키려고 하는 結果를 가져오지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國防長官이 答辯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道番 陸海空軍 責任者들이 왔고 특히 法務監이 왔습니다. 選信部

公明選舉를 한다고 그럴것같은 구태여 不在者投票를 할必要가 없지않느냐 또 不正選舉를 할까 무서워서 不在者投票를 하자는것이 아니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오 또 한가지는 營內에서 選舉運動을 한부로 해서 軍隊의 士氣에 影響을 출까 무섭다 두가지 理由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公明選舉를 하게된다 할것같은데는 不在者投票를 해가지고 二百區에 벌러가지고 無責任하게 하는것보다 가가운 거리에서 利害關係者들이 監視하고있고 立候補者들이 있고 하는데 알뜰하게 적은 範圍에서 投票를 하루만 軍隊가 犧牲을 하고 投票날만 軍隊가 犧牲을 하고 알뜰하게 그가 카우데다가 投票函을 갖다놓고 그 立候補者를 監視 밑에서 가벌러가지고 發表하면 나지 이것을 軍隊는 公正하게 했지만 特務隊가 잘못하든지 選信部가 잘못하든지 交通部가 잘못해가지고 이責任이 벌러져서 二百區가 軍隊의 不在者投票로 全部 벌러질때에 責任所在을 어떻게 물어야 할것이나 우리는 民主政治는 責任所在을 묻는것이데 過去에는 指揮官이 잘못하든지 特務隊가 잘못하면 不正選舉가 있으면 거기에서 檢事나 거기 警察이나 거기의 立候補者가 訴訟을 하고 選舉事犯을 일으켜가지고 取投票를 하지마는 이범의 境遇에 있어서 二百區에 選信部가 關與해 交通部가 關與해 軍隊가 關與해가지고 後方에 가서 不正이 일어났을때에 挾雜이 일어났을때에 不在者投票로서 이責任을 누가 물을것이고 누가 쳐야 할것이냐 責任所在을 長官이 말씀해주십시오... 그말 했더니 陸海空軍에서 온 사람들이 쓴 바작 들어요 바작 들고 李議員 말이 옳다 고... 假令 全州에 있는 檢事가 鐵原에 있는 全州出身 士兵이 上官의 壓力을 받아서 한수 없이 「싸인」을 가짜로 해서 보내고 葉權을 하고 代理投票를 했다 不在者投票를 했다 그것을 摘發해 가면 全州檢事가 鐵原에 가서 待期해가지고 摘發을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訴訟을 일으켜서 取調를 해야 할것인데 그럴機會가 完全히 이번이 不在者投票制度라는지 選舉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렸으니 完全히 우리는 投票를 할 選擇의 自由가 없으니 事實上 投票를 못해 競爭者 얼굴을 못보게 되니... 一線勤務에 그렇지않아도 棄權者의 무데기票를 代理投票 해버리는데 棄權者가 많아가지고 競爭者가 없고 選舉運動이 活潑하게 벌어지지 않기때문에 結局은 棄權防止가 아니라 結局 棄權이 되어버려... 不正해버리면 不正을 團束할 道理가 없어 이번에 萬一 不在票에 있어 封緘葉書를 속이다 하나 남고 「싸인」한것 假令기애 벌어져 이것을 地方選舉 參議員選舉에 보내려는 五億五千萬圓의 費用이 드는것입니다 軍隊가 물든지 或은 政府가 물든지 如何間 五億五千萬圓의

費用이 드는대 萬若 特務隊가 하나를 따들어 가지고... 살짝 뜯어가지고 어느 管内의 누구는 自由黨을 미느냐 野黨을 미느냐 해가지고 딱 調査해가지고 特務隊가 딱 「체크」해 놓고 살짝 붙여서 後方에 보내가지고 너의 指揮官은 「라디오」도 들고 新聞도 보니까 執權黨에서 누가 나온것을 너희는 아니까 그때서 壓力을 넣어서 너희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할때에 여러분이... 後方에 있는 選舉委員의 封套가 틀어졌는지 미들어 왔는지 「싸인」이 假字인지 하는것을 後方에 있는 選舉委員의 力量과 能力을 가지고 識別을해서 判定을 내릴수 있었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저금 長官은 부랴부랴 귀찬하고 자라에 던가슴 소두방 두껍만 보면 놀란다고 이번에 革命이 일어나면 軍隊가 큰 코를 다치게 되니 選舉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氣分下에서 結論에 가서는 이번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 士兵들 한테 對해서 有權者인 投票權을 가진 士兵을 한테 意思를 안들어 보았다 이거예요

士兵들은 特務隊 무서워 投票를 못하겠다 바로 그자리에서 投票하는것도 무서운데 一線特務隊에서 「싸인」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投票를 해서 만사발을 시켜서 郵便으로 보내가지고 後方에 들리는것은 士兵들은 不安해서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高級指揮官들도 士兵한테 壓力을 넣은 것을 特務隊가 알을까 무서워서 進級에 關係가 되기 때문에 高級指揮官도 인제 軍隊作戰을 못한다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事態가 올적에 長官은 어떻게 이것을 막을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國會議員은 地方代表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國家의 代表입니다 또 우리 憲法에 政黨은 準公的機關, 準國家的機關으로 되어있어요

政黨은 政綱政策을 내걸고 組織을 띄우고 國民에 선을 띄고 試驗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政黨 立候補者들이 自己 公薦을 받아 가지고 나오면 濟州道에서 나오든지 江原道 麟蹄에서 나오든지 間에 緣故權制度를 없애 버렸습니다 이緣故權을 없애버렸고 被選舉權者에 對해서도 緣故權을 없애버렸습니다

그理由는 地方代表로 置意해가지고 過去에 우리나라가 亡했다 그것예요 自由黨治下에... 地方事業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바 사바」나 하려고 그러고 國會議員들이 所信대로 못하기때문에 政黨政治를 指向하는데 있어서는 地方代表를 안내보내기때문에 江原道에 나오든지 어디에 나오든지 그 政黨의 公薦을 가지고 나오면 自由黨이고 民主黨이고 公薦者가 딱 와서 競爭을 할때에 管内 居住者들이 一定한 期限: 左右間 合同政見發表를 施行細則에 軍隊 管内에서 못하게 된다 管外는 어디 어딘가 管外다 한번이면 한번을 暫間 그 關係하는 사람이 모여서 合同下에서 選舉演說을 듣는다 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하는 程度內에서 누가 옳고 그름고 하는

것을 軍隊가 冷徹하게 보아 가지고 判定을 하는것이 좋지만 比較를 못해가지고, 上官이 壓力을 넣어서 萬一 나간다고 할것같은데 그러한 弊端이 어떻게 되느냐 할때에 이것은 緣故權을 無視하는 緣故權이 인제 必要없게 되니까 政黨政治를 爲해서는 적어도 立候補者 얼굴보고 演說보고 政策보고 그래가지고 投票해도 軍隊만은 影響力을 받기가 쉬운組織인데 그것을 다 廢棄하고 나간다고 할것같은데 地方에서 投票한다는것은 理論上 이것이 矛盾이 된다 이렇게 本議員은 생각하니 거기에서 對해서 政黨政治를 해보라는것이니만큼 不在者 投票는 말씀이요 그럼 여기에 對해서 投票를 해주십시오...

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싶은것은 長官은 軍內에 이 選舉運動者들의 「마이크」를 달아 놓고 시끄럽게 하면 軍隊의 作戰用兵에 支障이 있다 이게 골치가 아플것입니다

本議員도 亦是거기에 누구보다도 腐心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軍隊는 水準으로 보아서 村落에 있는 愚夫愚婦도 담 水準이 높습니다 論山の 訓練所에서 文盲退治를 해가지고 公民教育을 다 받고오고 義務兵도 다 大學卒業生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集團生活에서 內務班長을 하기때문에 萬一 一線軍人들이 進歩的勢力이나 或은 共產主義 煽動에 軍隊를 腐敗하는 組織作戰에 一線의 軍隊가 影響力을 받는다 할것같은데 인제고 한번은 받아 보아야 마를 것입니다

말리 그런 「푸레닝」을 거쳐 가지고 屢屢히 立候補者들이 煽動을 하고 어떤 立候補者들이 內容的으로 파고들어서 가더라도 軍隊의 水準은 村落에 있는 愚夫愚婦들도 막걸리잔을 먹고 警察의 危務를 맡아 가면서도 公正한 한票을 쓰는 데 하물며 水準이 높은 軍隊가 集團生活 을 하고 있는 軍隊가 煽動政治나 或은 共產黨 의 影響을 받아 가지고 危殆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不過하고 어느時 機는 그런時機가 있을는지 몰라도 끝끝내 이것을 抑壓의으로 막다가는 軍隊內部에서 危險狀態에 不平이 올것이니만큼 그러한 消極的 인 或은 그러한 理由가 서지않는 얘기 보담 오히려 營內의 選舉運動이라는 그 內容을 充分히 具體的인 施行法則으로 研究해 가지고 軍隊들이 煽動에 넘어갈 그러한 不安狀態에 指揮官들이 或은 買收工作이나 煽動에 넘어갈 그런것을 豫測해 가지고 軍隊內의 政見發表하는 것을 反對하고 이러한 消極的이고 抽象的인 얘기는 이것이 軍隊를 侮辱하는 것이고 長官들이 士兵들에對한 權益이라든지 士兵들의 水準을 無視하는 態度라고 本議員은 믿기 때문에 民主主義는 어디 까지나 自由選擇權을 가지고 對決한 「코—스」를 밝힐 수밖에 없다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것이지 아무리 長官이 누르고 말고 李承晚政權때와같이 軍隊로 하여금 軍隊를 아주 治外法權地帶를 만들 어 가지고 宣傳을 못들이가게 만들어 놓고 아무 리한 對策을 써보았던들 그럴수록 共產黨한테 口實을 주고 軍內의 不平을 자아내 가지고 時

間 문제이지 軍隊의 不조은 더 무서운 狀態로 나올 念慮가 있기 때문에 本議員은 營內의 選舉運動을 하는것 혹은 軍人 한테 政綱政策을 내걸고 政黨代表가 公平하게 合同政見發表하는 것을 두려워서 구태기 무서워서 醬肉 담는 格으로 이름 이름 나가다가는 언제나 이나라 民主主義 自由守護를 한다는 그 自負心을 우리 軍隊한테 주겠느냐 이 말씀이요 根本的 生 각을 다시해서 長官은 아까 말씀한 것이 여러 분이... 立法은 國會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政治關係를 떠나서 한다고 하고 될수있으면 政治關係에 따라간다고 하시지마는 政治를 하시는 政策樹立者인 長官께서는 現實의 與件 이 어떻고 軍隊가 新聞하나를 못보고 月給 하 나 제대로 못 타려고 말하여... 지금 完全히 作戰에만 置重해야 할것인데 一年前 이태前 부터 立候補를 한사람들이 全部 軍隊에 關心 을 가지고 事前運動을 해 가지고 軍隊를 막 벌 집 쓰시듯이 해 가지고 立候補者나... 被選舉權 者나 選舉權者가 軍隊를 相對 해 가지고 政治 를 하게 되는것이 오히려 더욱 不安하지 選 舉라는것이 그렇기 때문에 立法趣旨가 選舉運動 은 一年前부터 못한다 選舉公告한때부터 選舉 運動을 해라!

이런 趣旨가 民主主義의 正常的인 方法이라고 本議員은 보고 특히 軍隊는 合同政見發表나 지나가는 營內에다가 「포스다」나 이런 程度나 自己程度로 하고 選舉때에만 軍隊가 投票만 하 게하고 그외에는 오로지 共產黨을 배려하는데

에 專心專力하는 方法으로 나가야지 그렇지않 고 軍隊는 選舉에서 亡하고... 選舉에서 亡할 道理밖에 없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現實的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新國會가 나와서 이것을 充分히 再檢討해 가지고 할수도 있기에 문에 本議員은 選舉委員會의 小委員으로서이 왕의 不在者投票는 제 所信과 實質的 問題로 反對했다

또 民主黨의 擴大幹部會議에 選舉小委員이 招待를 받아가지고 充分히 論議한 結果에 不在者投票를 하자고 하는 自由黨意思도 있고 一部 意見이 있으니 그런 制度는 올려놓고 新國會에서 나와서 새로운 代表들이 나와서 하 기로 하고 制度는 올려놓고 이번 不在者投票 는 하지말자는 決定이 내렸읍니다

그것이 自由黨이 지금 두勢力이 갈라지기전에 政派代表가 나와 가지고 完全合意보아가지고 不在者投票는 지금 한수없게고려 選舉法에 만들 어진것을 想起시키고 하두 不在者投票를 選舉 小委員들이 좋다고만 얘기하기때문에 少數의 意見 혹은 完全히 協商選舉法 만드는데에 合意 된 政治道義에 立脚해 가지고 不在者投票가 지 금 당장에 內務部에서는 勿論 反對하지만 軍隊의 實態에있어서도 大端히 이것은 不當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意見을 제가 審議小委員으 로서 말씀드리고 내려잡니다 長官 答辯해주시 기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議事進行이요「하는이 있음)

○議長(郭尙勳) 오날(어)까 會議經過를 들으면 國防部나 內務長官을 불러서 政府의 意見을 들을 程度로 하고 質疑는 하지말자고 그렇게 議論이 되었다고합니다 나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國防長官이 國會에서 決意하는대로 하겠습니까 고... 만 약 答辯했으면 그 以上 더 짜달아 볼을것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時間만 자꾸 보내서 한말 또 하고 한말 또 하고 하는데 이 때 어쩡니까? 오날 세상 없어도 選擧法은 마쳐야 되겠는데 자리가 통 비어서 成員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될수있는대로 그것을 해가지고 協助 해주셔야지 오날도 못하면 내일 成員도 안되면 이것 가지고 얘기 하다가 그치고 맙니다 그러면 議事進行이 나왔는데 지금 國防部長官에게 여러가지로 李哲承議員이 불었습니다 또 여기에 質疑하는것이 정말 二讀會 다 끝났는데에 있어서 質疑하는것이 無意味한 얘기 을시다 實相은... 그러니까 나는 國防長官에게 기어히 質疑를 强要하는것을 아까 여러분이 約束한데에 여기는것같고 또 二讀會 다 끝나는 무렵에 또 政府를 불러놓고 質疑에 들어가는데 것은 이것은 矛盾 된 일이을시다 그러므로 나는 國防長官이 質疑를 拒否할理 없었지만 立法院의 決定에 쫓아서 하면 고만입니다

여기에 또 불을必要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答辯은 國防長官 自意에 맡기겠습니다

입니다 李成株議員 議事進行 發言하세요 (李成株議員 지금 議長께서도 말씀이 계신바와같이 選擧法案審議는 二讀會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國防長官이나 內務長官을 國會에 오시라고 해서 證言을 듣기로 했고 또 그證言을 들었으면... 우리들이 立法하는데에 있어서 參考로 한다면지 또 그證言에대한 眞意를 우리가 잘 研究해서 立法하는데에 도움을 받을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二讀會에 들어간 이때에 國防長官에게 자꾸 質疑를 한다는것은 이것은 議事進行上 矛盾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議長께서는 오날 어떻게든지 選擧法案이 結果를 맺어야 되겠다는 熱意를가지고 지금 司會를하고 계시는출로 압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議員들의 數交가 定員數에... 상당히 많은 數交가 不足한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날 아무리해도 表決에 들어가기가 어렵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여기서 時間을 길게 가지는것보다도 오날은 그만하고 來日다시 選擧法을 審議하도록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議事進行으로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議長(郭尙勳)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시지만 國會는 結局가서 며칠이 가는지 얘기끝에 손을 들어서 作定하는것입니다 그原則을 떠날수 없고 個人的 不滿이나 固執을 가지고 國會의 作定하는 原則을 떠날수없고 또 아닌게아니라 時間이 急迫했고 또 말씀을 했자 한말 또 되

풀이하고 되풀이 하는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날은 벌써 成員이 안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세요 마침 內務長官이 지금 出席했으니 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決議하시기를 國防長官 內務長官 關係長官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意向을 물어보자 그렇게 決議되었고해서 마침 內務長官이 오셨으니까 內務長官은 지금 不在者投票에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政府當局의... 內務當局의 意見을 말씀해 주서가지고 議員여러분의 討議決定하는데에 參考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長官 政府意向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長官(李 濤) 不在者投票制度問題에 대해서 오날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政府의 생각을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다른일때문에 좀 늦게 오게 되어서 대단히 罪悚합니다

이問題에 대해서 去般 豫算決算委員會에서豫算... 第一回追加更正豫算을 審議할때에 政策 質疑하는데 이問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간단하게 몇마디 答辯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 不在者投票制度自體에 대해서는 曰可曰否가 있는 모양인데 事務的으로 대단히 複雜하니까 여러우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가지 저회들도 研究를 해 보았을나마는 이 國防部에서 卽 말하자면 軍人 當事者가 되는 軍人들이 이 不在投票를 했으면 좋겠다 卽 말하자면 現地에서... 部隊에서 投票하는것보다는 各自 自己故郷있는데에 이것을 보내어 가지고 投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要望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고 또 저회 들로서도 一般的으로 이러한 輿論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가 研究해본 結果에 亦是 이 制度自體는 대단히 좋은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過去에는 한번도 해본일이 없는 制度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 아직도 啓蒙이 안되어 있고해서 대단히 어려운 양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이번만은 이것을 배 어주시고 요다음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나마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금 審議하고 있는 法案의하면 이것을 여러분께서 不在者投票制度를 定해가지고 이대로 施行하였다면 全然 不可能한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勿論 이것을 요번 選舉法이 不在者投票制度를 넣어 가지고 通過가 된다면 여기에 이것을 啓蒙하는데 時間을 보내야 할것이요 하겠읍니다마는 結局 問題는 區市 選舉委員會에서 不在者에 대해서 投票用紙를 보내가지고 이것을 가령 軍人이라든가 或은 刑務所에 있는 사람이 이 投票를 해가지고 이 選舉委員會에 보내는데 아흐레간인데... 九日間에 끝내야하는데 勿論 이 大部分의 部隊와 刑務所라든가 이런데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라마는 濟州道

혹은 山間僻地에 있는 이런데에 있어서 多少 時間的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회 들이 念慮 하는것입니다 이 問題에 관해서는 九日間에 投票用紙를 送付 해가지고 이것이 選舉委員會에까지 오는데 있어가지고 아흐레동안에 이것이 充分히 可能하냐 안하냐 이 問題는 비단 內務部에서만 判斷할 問題가 아니 고 逓信部에 물어보아야 할것이요 軍에서 投票하는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特別한 措置를 해서 協力하느냐 안하느냐 이 問題는 九日間에 할수 있느냐 이 問題는 제가 여기에서 무어 充分히 可能하다든지 안하다든지 하는것 을 말씀 드리기 前에 여러분 全體가 이것을 判斷해야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不在者投票制度를 여러분께서 꼭 하시었다면 內務部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施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이자리를 빌어 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할것은 저번이 國會議員室에서 各派代表하고 모여서 말씀을 했 습니다마는 參議員 民議員選舉를 同時에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 습니다

이때에 제가 생각한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審議하고있는 選舉法에 依할것같은데 이 不在者 投票에對해서 民議員에 있어서는 요번에는 안 하고 요다음부터 한다 또 參議員은 이번에는 안 하는 二選舉부터 한다 卽 말하자면 六個月以 內에 같이 同時에 選舉를 안한다는 그러한

前提下에서 二런것을 審議하고있는데 우리政府 立場으로서 이 民議員 參議員選舉를 同時에 施行하는것을 贊成하고 나신 이마당에 있어서는 이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여기에서 民議員 參議員選舉를 同時에 할때에는 이 選舉法에 있는 이 不在者投票問題도 같이 步調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二것입니다

勿論 그야 이것을 여러분께서 選舉를 같이 안하고 따로 따로 한다면 別문제 을시다마는 萬若에 이것을 同時에 選舉를 한다면 이 選舉法도 여기에 맞추어서 같은 步調를 取해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以上 이을시다

○議長(郭尙勳) 어떠십니까? 成員도 안되고 또 여기에 發言하신분은 아직도 몇분 더 계십니다 二런데 政府의 意向은 國防 內務 責任 者에게 얘기를 들었고했으니 來日은 成員이 되면 表決로서 이것을 作定하도록 그렇게했으면 어떻습니까?

(「홍소!」하는이 많은)

그리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成員한번 督促을 해보겠읍니다마는 아마 成員이 안될것같 습니다

아! 밖에 계시는 議員여러분 들어오셔서 이 表決에 參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復道나 休憩室에 계시는 議員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成員 이루어 주세요 復道나 休憩室에 계시는 議員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어디 가지마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디에 가지마세요... 成員이 아무래도 앉았니
다 그래서 오날은 表決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앉
어주세요 아 그러면 討論은 이걸로써 終結하
기로 하고 來日 表決한다는것을... 來日 成員
되던 再開를 하겠읍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직 討論終結에 對해서 成員이 안되었기때문
에 決定을 못지었읍니다

(成員이 안되는데 어떻게 決定을 해요?)
하는이 있음)

終結 아닙니다 數자가 不足해서 終結이 안됨
니다 내 意見을 말 한것입니다 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럼 終結안된것입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지요 내가마음에
로 못합니다 그것 여러분 多數 意見이 來日
討論終結 합시다 해서 손들어서 決定하면 道
理가 없는것이고 또 討論하자면 했지 別數있
음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써 오날은 그만 하겠읍니다

(警察官示威에對한收拾策에關한件)
(下午三時十五分)

○議長(郭尙勳)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內務部長官! 內務部長官! 잘들
으세요
아까 저기에 數百名의 正服警官이 國會議事堂
앞에 와서 演說을 하고 야로물치고 「메도」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國會에서 普通 國民도 아니요 正

服을 한 警官이 國會議事堂을 包圍하고 「메도」
를 한다는것은 國家體面에도 틀림없이고 또 警
察行政에 있어가지고 勿論 首腦部가 시킬려는
萬無한것이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一般 國民이 불매에 다른메도
아니요 오히려 保護의 責任을 진 警官들이여
기때 와서 야로물 치고 喊聲을 지르고 해서
議事堂의 議事進行에 妨害를 했다는것은 이것
은 重大한 문제읍니다

가사 國會議員이라든지 國會에서 하는處事가 自
己에게 不滿하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普通 사
람이 아니고 國民의 生命財產을 保護하고 民
權擁護하는 이 사람을 保護할 責任을 충분히
가진 그네들이 오히려 議事妨害하고 騷亂한다
는것은 이나라 將來를 위해서 寒心한 일이읍
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가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여기에對해서 國會 또는 國民앞에 아는바 있
으면 仔細히 報告해주시고 또 앞으로 여기에
對해서 어떠한 措置를 할 생각을가지고 계시
는지 이것을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해주시고 앞
으로 어떻게 處理하겠다는것까지 말씀해주시기
를 바랍니다

나와서 李內務部長官 여기 나와서 經緯와 앞으
로 뜻을 報告해주세요
○內務部長官(李 濤) 아까 一部 警察官이 이
神聖한 國會 議事堂앞에서 示威을 한것에對해
서는 저는 무엇이라고 謝過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대단히 罪悚하게 되었읍니

다 實은 어제가 「아이젠하워」 美國 大統領
께서 우리나라를 訪問하시고 어제 午後에 이
리 지나갔다 이 國會議事堂에 出席하기위해
서 오는데있어가지고 아마 이 警備를하는데 金
善太議員에게 暴行을 당하고 거기에對해서 아
마謝過를 얻느니 해서 아마 이示威을 한 模樣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제저警察官이 요번 이
「아이젠하워」 大統領... 우리나라 訪問에 있어
가지고 이 서울 市內를 警備하기 위해서 地
方에서... 各 地方에서 약간名의 警察官이 中
央에 集結을 했읍니다 해 있어가지고 이 서
울에 있는 警察力과 合同을해서 沿道警備와 또
이 整理를 했는데 그제저는 日曜日이고 또날
씨가 대단히 좋고해서 歡迎하는 國民들이 너
무많이 나오고 또 너무 熱誠的이 되어서 이
서울市廳앞 또 서울驛앞 여기에서는 一大 混
亂이 惹起가 되어서 도저히 警備하는 警察力
으로서는 이것을 收拾을 못하고 混亂을 일으
켰읍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大統領도 할수없이 中間
에서 行路를 變更하지않으면 아니될 그런地境
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어제는 國會議事堂에
「아이젠하워」 大統領께서 오시게 되어서 이國
會議事堂 앞이라는것이 대단히 중요 警備하기
가 대단히 어렵고해서 또 그제저와 마찬가지로
로 一般國民... 歡迎하는 國民이 너무나많이 나
와서 混亂을 일으키기쉽게 되어있기때문에 미리
부터 交通을 遮斷하고 車輛을 遮斷안하면 아니
되게되어서 그래서 미리서 鐵桶같은 警備陣을

외가되고 交通을 미리부터 遮斷했습니다. 그때
서 外務部에서 發行하는 通行證을 가진사람以
外에는 사람과 或은도 車輛도 一切 通行을禁
止하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勿論 國會議員께서 國會에 나오시는 데에
있어서는 될수있으면 그車를利用을 해가지고 이호
關까지 오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車로 오
신다음에 그車를 돌려가 없어서 미리부터 저기에
서 下車를하고 잠깐 걸어들어오서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십사하는 그런 經緯事였습니다. 했는데 아
마 어떻게 된셈인지 金善太議員께서 그線에 그
것이 되어서 아마 이러한 그 不祥事가 일어
난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제도...어제
밤에 그러한 暴行과 侮辱을 賞했다고 해가지
고 대단히 氣勢가 不穩하다고 해서 저희들 內
務部 幹部들로서는 이 暴行과 侮辱을 賞했으
면 어디까지나 法에 依해서 告訴를 하든지 해
서 法에依해서 處理를 해야지 「메모」를 하는
法이 아니고 또 警察官이라는 國家公務員으로
서 「메모」라는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다는것
을 너무나 說明하고 이것을 타인했었습니다. 타
인했다는 오날 아침에 中央廳에서 解散式을 舉
行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餘勢에 乘해서 아마
여기까지 온 모양인데 왔는데 勿論 우리 警
察幹部로서는 이것을 撫摩하노라고 애를썼습니
다. 마는 끝내 듣지않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메
모」를 했다는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뒤라고 謝禮를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點

에 대해서 저보고 責任을 지라고 하면 인제
든지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問題에 대해서는 于
先 이것을 撫摩를 해서 解散시켜서 各自 處
所에 돌아가는것을 勸告를 해서 지금 막 解
散을 시키고 오는 中이올시다. 그러나 國家公
務員으로서 이러한 그 좋지못한 行動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 內務部로서는 이것을 調査
를해서 處罰을 할사람은 處罰을 하겠습니다. 그
範圍가 어느程度에 갈지 이것은 調査를 해보
아야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
릴수있는것은 이것을 철저히 處罰해서...處罰
받을만한 사람은 處罰한다는것을 여러분에게 말
씀드립니다. 以上이올시다.

○議長(郭尙勳) 內務部長官이 이제 嚴罰을 하
겠다는 이런 言明도 있었고 調査하겠다는것도
있었고 잘못했다고 國民앞에 謝禮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內務部長官에게 한마디 말씀 드
린것은 勿論 內務部長官도 잘 아실줄 압니다
國會議員이 登壇하는 途中에는 天災地變以外에
는 어떤 國家에서라도 거기에 妨害를 못하는
法이 올시다.
假使 罪人이라고 認定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國會가 開會되어서 그時間에... 出勤時間에는
天災地變 以外에는 妨害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마 내가 생각키모는 勿論 國
會議員이라고 해서 말로한것이 아니고 暴行을
했든지 하는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마는 그래도 一國家의 國會議員이라고 하면

아무리 大韓民國의 國會議員이라 할지라도 登
壇하는데 있어가지고 秋毫만치라도 不自由가
없어야 되었는데 어제는 아닌게 아니라 이 많은
國會議員들이 많은 不便을 느꼈고 巡警에게
處待를 받고 侮辱을 受한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올시다. 이點 內務部長官께서 깊이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特別 嚴格하게 이
르고 注意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모씨 散會하고 來日 午前十時
에 다시 再開하겠습니다.
(下午三時二十八分散會)